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R.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예술교육론에 기초한 수업지도안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경 민

R.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예술교육론에 기초한 수업지도안 연구

이 만 수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경 민

# 인 준 서

김경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은 정신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영혼의 수련을 강조하고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간의 참된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식 전달과 기술의 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물질 자본주의의 교육을 ‘죽은 교육’이라고 보고, 영(Soul)의 깨달음인 인지학을 기초로 하였다. 이는 육체,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것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세계에 대한 성장은 예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교육 또한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상상력과 독창력을 자극하여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밖으로 이끌어주는 역할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적 분위기가 결과 또는 기능위주를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찾아가야 할 내적 세계와 자신만의 영혼과 자아를 일깨워주기보다는 똑같은 틀에 찍어내는 기계적인 마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대해 살펴보고, 인지학이 바탕이 된 예술교육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또한 슈타이너가 만든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안을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수업지도안으로 바꾸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인지학은 ‘본질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지학에서의 교육은 참된 과정으로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속에서 예술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

해하게 만들도록 인도해 주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은 예술적 요소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발도르프 학교의 모든 교육은 예술을 이용한 통합 교육으로 예술을 통해 삶의 기초를 배움으로써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영혼을 일깨우게 되며,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 중 슈타이너가 만든 여러 교육과정 속에 ‘포르멘’수업은 외부 물체의 관찰을 통해 그리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내면의 정신세계를 통해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성을 찾아 그리는 것을 우선시한다. 또한 “습식수채화’는 피테의 색채학을 기초로 하여 젖은 도화지에 형태가 아닌 물감만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미술 활동 속에서 자신과 색채와의 교류를 위한 수업으로, 이 두 수업은 아이들이 자신의 내적 세계나 상상력, 창의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을 중시한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과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을 예로 들면 종이에 그려진 형태 소묘 위에 색을 입혀 ‘잘 그려진 그림’으로 완성하는 게 한국 학교의 일반적인 미술교육이라면,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은 형태 학습인 포르멘(Formen)과 색채 학습인 습식 수채화(wet-on-wet watercolor)를 나누어 교육한다는 점이다. 즉 ‘잘 그리기 위한’ 미술교육이 아닌 형태나 색채의 본질적인 체험을 통해 궁극적인 자아를 느끼고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만을 중요시하여 ‘잘 그려야만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 포르멘과 습식 수채화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적용시켜, 내적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삶 속에 미술이 하나의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아이들의 내적 세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II. 인지학의 이론적 배경 .....	4
1. 인지학의 성립배경 .....	4
2. 인지학의 특성 .....	6
1) 인지학적 인식론 .....	6
2) 인지학적 인간론 .....	8
가. 신체, 영혼, 정신 .....	8
나. 인간의 네 가지 구성체 .....	11
3) 인지학적 발달론 .....	14
4) 인지학적 기질론 .....	17
III. 슈타이너의 예술교육론 .....	20
1. 예술교육론의 교육원리 .....	20
1) 정신성의 원리 .....	20
2) 전인적 인간 형성의 원리 .....	22
3) 창조적 감성의 원리 .....	24
2. 예술로서의 교육 .....	26

3. 슈타이너 예술교육의 미술적 구성 .....	28
1) 에포크(Epoch)수업 .....	29
2) 포르멘(Formen) .....	30
3) 습식 수채화 .....	35
<b>IV. 발도르프 학교 예술교육과정 분석 및 적용사례 .....</b>	<b>38</b>
1.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 .....	38
1) 목표와 성격 .....	38
2) 교육과정 및 시간표 .....	39
2.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	46
1) 목표와 성격 .....	47
1) 교육과정 및 시간표 .....	47
<b>V . 발도르프 학교와 우리나라 초·중등 미술교육 비교 .....</b>	<b>64</b>
1.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	64
2.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	66
3. 발도르프 학교와의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 비교 .....	67
<b>VI . 인지학적 예술교육론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 .....</b>	<b>69</b>
1. 수업지도안 (포르멘의 적용) .....	69
2. 수업지도안 (습식 수채화 적용) .....	80
<b>VII . 결 론 .....</b>	<b>89</b>

참 고 문 헌

ABSTRACT

## 표 목 차

<표-1> 4가지 구성체의 7년 주기설 .....	15
<표-2> 발도르프학교의 7학년 시간표 .....	30
<표-3> 형태(포르멘) 수업의 실제 .....	34
<표-4> 발도르프 학교의 수채화 수업 .....	37
<표-5> 발도르프 학교 수업과정 .....	41
<표-6> 전 세계 발도르프 학교 현황 .....	42
<표-7> 바젤·발도르프 학교 16차 교육과정(1~8학년) .....	43
<표-8> 바젤·발도르프 학교 16차 교육과정(9~12학년) .....	44
<표-9> 발도르프 학교의 교과별 교육내용 .....	45
<표-10>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의 연혁 .....	46
<표-11>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1~3학년) .....	49
<표-12> 2011년 2학기 시간표(1~3학년) .....	52
<표-13>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4~5학년) .....	53
<표-14> 2011년 2학기 시간표(4~5학년) .....	56
<표-15>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6~8학년) .....	57
<표-16> 2011년 2학기 시간표(6~8학년) .....	61
<표-17>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9~12학년) .....	62
<표-18> 2011년 2학기 시간표(9~12학년) .....	63
<표-19> 초등학교 미술 교육 내용 체계 .....	65
<표-20> 중학교 미술 교육 내용 체계 .....	66

## 그림 목차

<그림-1> 슈타이너의 인간의 이미지 .....	10
<그림-2> 발도르프 학교의 학년구성과 특색 .....	39
<그림-3> 형태(포르멘) .....	70
<그림-4> 초등학교 포르멘 탐구활동지-1 .....	77
<그림-5> 초등학교 포르멘 탐구활동지-2 .....	78
<그림-6> 초등학교 포르멘 탐구활동지-3 .....	79
<그림-7> 습식 수채화 .....	80
<그림-8> 하늘이 부린 마술-활동지-1 .....	87
<그림-9> 하늘이 부린 마술-활동지-2 .....	8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는 물질 중심 사고방식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단시간 안에 이루어내는 결과를 중시한다. 그로 인해 정신적인 것은 줄어 들고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예로 컴퓨터나 TV에서 나오는 가상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즉 외적인 현상만 쫓다 보니 실제의 삶과 관련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영역을 깨우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아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발도르프 학교를 롤 모델로 한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을 통해 “인식은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달 가능한 것으로 영혼의 수련에 의해 인간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즉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 능력을 단련시킴으로써,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능력은 예술교육을 통해 단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된 발도르프 학교를 살펴보면, 모든 교육은 예술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영혼과 정신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

리가 되어준다고 보았다. 교육의 기본적 토대를 중시했던 슈타이너의 미술 교육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술은 교육의 에너지원이다. 둘째, 아동의 자유로운 자기 교육의 매체로 이용 가능하다. 셋째, 감성의 교육을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체험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매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통해 ‘예술이 곧 교육’ 그 자체로 볼 수 있으며, 자율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초에 나타난 슈타이너의 이론이 21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고, 주목받는다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의 근거이다. 눈에 보이던 것만 쫓아가는 물질적인 시대에 살면서 허약해진 인간의 영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명상이나 요가를 통한 행위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풍토와 지나온 시간의 어린 기억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적 세계의 영혼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의 힘은 예술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 슈타이너의 예술교육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인식론과 인간론 그리고 발달론, 기질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인지학이 바탕이 된 예술교육론의 세 가지 교육 원리와 슈타이너 예술교육의 미술적 구성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의 예술교육과정을 적용시킨 우리나라의 청계 발도르프 학교에 대해 살펴보고,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와 우리나라 초·중등 미술 교육과 비교를 통해 R.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초한 예술교육론 중에 포르

멘(Formen)과 습식 수채화(wet-on-wet watercolor)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미술교육에 적용 가능한 수업지도안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으로 둔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정신의 조화로 전인적 인간 형성을 추구하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는 예술교육론을 통해 내적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감각을 외적 세계로 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론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이 변해가야 할 과제로서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감성과 창의력, 인성보다 기계적인 감성을 요구하는 현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슈타이너가 강조한 예술교육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업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연구 목적으로 두고있다.

Ⅱ장에서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의 성립배경부터 인지학의 핵심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인지학을 토대로 한 예술교육론의 정신성, 전인적 인간 형성, 창조적 감성의 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슈타이너 예술교육이 가진 미술적 구성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의 전반적인 구성과 우리나라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Ⅴ장에서는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을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중등 미술교육에 대해 비교하고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Ⅵ장에서는 슈타이너의 미술교육 중 포르멘과 습식수채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미술교육에 적용 가능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인지학(人智學)의 이론적 배경

### 1. 인지학(人智學)의 성립배경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은 괴테(Goethe, 1749~1832)의 자연관과 인간관의 영향 속에 형성되어 왔으며,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동일시하여 객관적으로 보려 하였다. 특히 인간의 영혼활동이 사고, 감정, 의지라고 판단하였으며, 이것은 슈타이너의 인간 본성에 관한 인식적 토대가 된다.<sup>1)</sup>

인지학은 사람을 뜻하는 ‘anthropos’와 지혜, 지식을 뜻하는 ‘sophia’로 이루어져 있다. ‘anthropos’는 파생적으로 ‘turning upwards’를 뜻하는 말로 ‘anthroposophy’는 ‘삶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뜻한다.<sup>2)</sup> 즉, 인지학은 ‘본질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인지학이라는 용어는 짐머만(Robert Zimmermann)이 자신의 미학이론에서 사용한 단어로 슈타이너가 자신만의 정신과학적 세계관을 인지학이라 부르면서 정신과학(인지학)이라는 뜻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신과학은 정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무의식이나 최면상태가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의 내적 세계를 경험하는 의식과 능력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을 뜻한다.

1)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학지사, 2004, p.36.

2) Roy Wilkinson,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론”, 『고려대 교육사 철학 연구회』, 1997, p.27.

“개념과 관념에 대한 경험, 그것은 무의식적이거나 또는 최면 상태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경험 속에서 관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실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R.Steiner,1977)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성립되고 발달하는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902년에서 8년 동안 『신지학』(Theosophy, 1904)에서 정신적인 실재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자연 과학적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많은 저술을 남긴 괴테의 영향을 받은 슈타이너는 당시 자연과학이 생명현상의 본질을 설명하기보다는 유기체를 부분의 합으로 이해하고, 생명을 가진 유기체는 전체를 통해서만 각각의 부분에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타파하고, 자연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살아 있는 과학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는 “괴테 과학”(Goetheanistic Science)이라 부르기도 한다. 괴테 과학의 핵심인 변용(metamorphosis)은 하나의 같은 동·식물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꽃의 잎, 꽃받침, 화관, 암술 등은 같은 기관으로부터 나와 모양과 형태가 변형된다. 슈타이너는 괴테가 주장한 변용 과정을 인간의 발달단계로 확대시켜 인간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였다. 즉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변화·성장하는 인간’은 이러한 변용 과정을 거치는 인간을 뜻한다.<sup>3)</sup>

두 번째는 1910년에서 7년 동안 예술적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로, 슈타이너의 내적 경험이 예술적인 형태로 변형, 발전되면서 포르멘, 습식 수채화, 오이리트미라는 새로운 예술적 장르가 탄생하였다.

---

3)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pp.37-53.

세 번째는 1917년에서 7년 동안 슈타이너의 정신세계에 관한 내적 경험이 사회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되는 시기로 1919년 발도르프학교를 세워 슈타이너만의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와 같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슈타이너 스스로의 정신세계로부터 완결된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며, 그의 일생동안의 발달과정과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정신경험을 출발점으로 ‘자유의 철학’(Die Philosophie der Freiheit, 1894)에서 인식론적으로 확립되고, ‘신지학’(Theosophie, 1904)을 통하여 기본토대가 적립되었으며, ‘인지학회’ 설립을 통하여 심화되었다<sup>4)</sup>

이러한 인지학의 특성을 인식론과 인간론 그리고 발달론과 기질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 2. 인지학(人智學)의 특성

### 1) 인지학적 인식론

슈타이너는 인지학을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그것은 정신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질 안에는 정신적인 것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물질 중심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즉, 과학이 물질세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법칙을 찾아내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학 역시 정신세계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

4) 정혜영,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사상적·이론적 기초 :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교육학 연구』 35권, 1호, 1997, pp.4-5.

“ 우리는 인식론을 인간의 모든 지식적 의미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학문(인식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개별과학의 내용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즉 인식론은 과학을 통하여 세계관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증적인 지식은 대별적인 인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의 실제적 가치는 인식론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 (R.Steiner,1987)

슈타이너는 인간의 경험적 인식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가 개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세상에 대한 경험들이 인간의 내면으로 쌓이고, 이러한 경험들은 정신을 통해서 능력으로 변환되므로 정신적 능력을 높이는 힘은 체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은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능력이 깨어나도록 하는 영혼의 수련을 강조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정신적 깨달음으로 ‘더 높은 세계, 정신적인 세계의 도달’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 초감각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식의 틀을 집중, 명상, 도덕적 태도 등으로 변환시켜 개발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는 동양적 사상과 유사하다.

괴테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인간과 우주 사이에 자연 과학적인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감각을 초월하는 정신세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즉 보다 높은 정신세계도 마치 육체적인 것처럼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될 수 있다고 본 정신과학에 대한 연구는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에 기초가 된다.<sup>5)</sup>

---

5)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의 기초 인지학(Anthroposophie)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2) 인지학적 인간론

슈타이너가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영혼 연구방법을 발견하고자 한 주된 목적은 인간의 참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지학적 세계를 통하여 인지학적 인간론을 전개하면서 당시의 인간학과는 다른 방법적 출발점으로부터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 가. 육체, 영혼, 정신

인지학은 육체만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인지학은 인간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과 정신의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종래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정신’과 ‘육체’라는 이분법적인 방식 위주로 전개해왔지만, 슈타이너는 이분법적인 방식을 배격하고 인간을 육체(Body), 정신(Spirit), 영혼(soul)의 삼분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육체 · 영혼 · 정신이 조화롭게 일치될 수 있는 인간을 찾고자 하였다.

슈타이너는 인간은 육체를 통하여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즉 ‘자기’ 밖에 존재하는 물질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을 통하여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영혼을 탐지해 낼 수는 없다. 감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감정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존재는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만의 내재적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정신을 통해서만 그 신비를 찾아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것은 인간이 감각적 인지의

세계인 육체와 자신의 내적 세계를 구축하게 해 주는 영혼, 그리고 그것을 고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는 정신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sup>6)</sup>

여기서 영혼과 정신의 차이는 분명하다. 슈타이너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보다 고차원적인 정신을 매개하는 중간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한다. 즉 우리는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체는 영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슈타이너는 ‘인간의 영혼은 정신활동의 법칙에 지배 된다’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간은 물질과 정신을 모두 다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가진 신체의 물질적인 부분의 특성들은 섬세한 부분까지 신체에 자세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얼굴의 생김새, 앉는 자세, 습관적인 행동, 걸음걸이 등은 모두 그 아동의 정신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신체는 유전법칙에 따라 죽음을 통해 사라진다. 반면, 정신은 불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체를 업고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영혼은 신체와 정신을 매개하는 것으로 현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영혼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신체는 유전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영혼은 자기 창조적인 운명에 따르고, 정신은 불멸하여 끊임없이 지상의 삶을 반복한다.<sup>7)</sup>

“ 신체(body)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각한다. 우리는 신체를 포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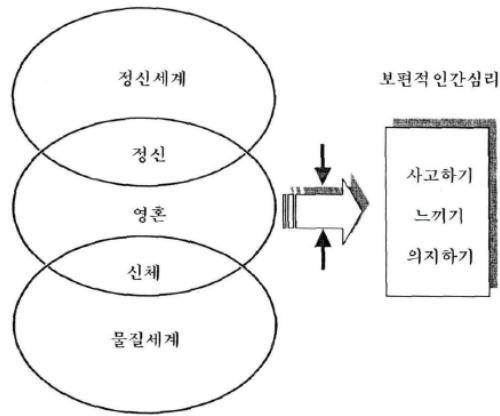
---

6) G. Childs, Steiner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 Floris Books, 1991), P.24.  
재인용.

7)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p.81.

서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신체를 볼 수 있듯이 영혼(soul)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거나 기쁨 고통 등에 감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영역이다. 신체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다른이의 눈에 더 보이지 않는 온전히 내 자신의 세계이다. 또, 정신(spirit)을 통해서 바깥의 세계는 더욱 고차원적으로 내 안에 드러난다. 우리는 눈을 통해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이때 영혼이 경험하는 기쁨은 내안에 속한 것이다.”

(R.Steiner,1971)



<그림1> 슈타이너의 인간의 이미지

(Lievegoed Bernard, 1977:57)

정신세계로부터 내려온 영혼은 정신영역이 물질적 유전의 지배를 받는 신체와 영혼 영역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인간의 성격과 기질이 형성된다. 이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서로 다른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sup>8)</sup>

8)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p.85.

## 나. 인간의 네 가지 구성체

슈타이너는 7세, 14세, 21세를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출생을 포함한 4번의 계기를 통해서 인간은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로 이루어진 네 가지의 구성체를 갖게 된다.

### ㄱ. 물질체

인간의 물질체는 우리가 ‘신체’라고 이르는 것을 말한다.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는 현대과학에 의해 많은 것이 발견되고 설명되고 있다. 슈타이너가 초감각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인간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때, 이것은 감추어진 신비의 물질적 근거가 된다.

물질체는 생명이 없는 광물의 세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물질체는 광물체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의 물질체는 광물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sup>9)</sup>

즉 ‘물리적 신체’로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광물적인 물질들로부터 형성한다.

### ㄴ. 에테르체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두 번째 구성체는 에테르체로 다시 말하면 ‘생명체’로 그리스어로 ‘빛남’을 의미한다.

---

9) 정윤경, 「예술로서의 교육」, 『철학연구회』, 고려대학교 교육사, 1997, p.86.

슈타이너는 '고차원적인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 즉 물질체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적 내용물에 분명한 형태와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신체의 어떤 성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고차원적 존재를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생명체에 관해 희미하게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에테르체는 유기체로 하여금 하나의 개체로서 자립시키는 생명력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에테르체로 갖기에 생명체(life body)라고도 하며, 물질체의 형태를 보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형성력체(formativ forcebody)라고도 한다.<sup>10)</sup>

즉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로 생동적인 형성력과 성장, 번식, 유전 등과 같은 생명 현상을 일컫는다.

#### ㉔. 아스트랄체

인간을 구성하는 세 번째 구성체인 아스트랄체는 쾌락, 충동, 열망, 열정, 등의 감각, 감정의 전달자로서 '감정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감각이나 감정들은 감각작용을 포함한다. 식물은 감각작용이 없고 자극에 대한 반응만 있지만, 동물은 감각작용을 가진다. 따라서 감각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의식이 내적 생명에 해당하는 아스트랄체는 동물계와 특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에테르체가 물질이 아닌 활동적인 힘의 형태라면, 아스트랄체는 내적으로 움직이며 빛을 발하는 형태이다. 즉 이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작용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내면화 하게 된다.

---

10) R. Steiner, 『An Autobiograph, trans, Stebbing Rita』, (Blauvelt: Steiner Book), 1971, p.15. 재인용.

아스트랄체의 활동이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하는 것이며, 이 점이 앞의 두 구성체인 물질체나 에테르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간은 충동, 본능, 욕망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사물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의식하며, 자극에 반응하여 쾌, 불쾌 등 다양한 감정에 따라 사고하며 살아간다. 특히 아스트랄체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충동, 쾌, 불쾌 등을 포함하는 감정이다.<sup>11)</sup>

즉 ‘감정체’ 또는 ‘아스트랄체’는 의식과 내적 체험, 고통과 기쁨, 충동과 탐욕, 등 감정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

## ㄴ. 자아

앞의 세 가지 구성체가 광물이나 식물, 동물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자아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고유의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의 존재와 작용은 ‘나’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라고 하는 명칭은 자기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모든 것과 구분되게 한다. 즉, 인간은 ‘나’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여타의 존재들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sup>12)</sup>

인간은 내적 체험과 다른 생각의 존재가 아닌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무엇과도 공유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개체성으로서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이다. 즉 ‘자아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시키지 않으며, 일정한 정도만 추구하거나 회피를 통해 스스로 제어하는 법을 배운다.

---

11)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pp.90-91.

12) 정윤경, 상계서, pp.92-94.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구성체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같은 속도로 동시에 성장하지 않는다. 슈타이너는 네 구성체를 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발달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이때 발달은 연속적인 발달이 아닌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의 탄생이라는 계기를 포함하는 의미의 발달이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신체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구성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인간을 이루는 네 가지 구성체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 3) 인지학적 발달론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적 인간론에 의해 발달되는 인간을 육체적(물질), 영혼적, 정신적 존재로 보았다. 인간을 세 가지의 현 존재 구역, 즉 육체를 통하여 감각세계에, 영혼을 통하여 영혼세계에, 정신을 통하여 정신세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에 대한 본성 파악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의해서 고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육체적인 것에 관련된 좁은 의미의 인간학은 영혼과 정신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지학으로 확장되었다. 종래의 발달심리학은 변화하는 영적 외향들의 시간적인 결과들만을 기술하는데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발달과 변화는 파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적 방법으로 영혼과 정신도 육체처럼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인지학적으로 확장된 발달심리학은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에 발달 지향적인 교육학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sup>13)</sup>

---

13) 정윤경, 「인지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14 No.1. 2009, pp.187-211.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을 연속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발달의 비약적이고 질적인 변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발달현상에 대해서 ‘성숙’이나 ‘발전’이라는 단어 보다는 ‘탄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세계 안에 인간의 위치와 인간이 가진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위에서 언급한 인간본질의 네 가지 구성체를 제시하고, 그 구성체들의 협동에 의해서 인간현상이 산출된다고 보았다. 이 구성체들은 모두 동시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신체’의 탄생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 ‘감정체’, ‘자아체’등의 탄생을 각각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각각 보호막에 둘러 싸여 완전히 성숙되기까지는 그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물리적 신체’의 보호막은 ‘모태’, ‘생명체’의 보호막은 ‘물리적 신체’, 그리고 ‘감정체’의 보호막은 ‘생명체’, ‘자아체’의 보호막은 ‘감정체’라고 보았다. 이 네 가지의 구성체의 탄생은 약 7년간의 리듬 속에서 결정된다. 슈타이너는 7세, 14세, 21세를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표-1> 4가지 구성체의 7년 주기설

제1기	탄생~7세	· 탄생에서부터 치아교체기까지의 시기 · 아동신체의 건전한 성장과 감각의 발달에 의한 ‘의지’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물리적 신체
제2기	7세~14세	· 치아교체 시기부터 성적 성숙기까지의 시기 · 풍부한 ‘감성’의 발달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자연과의 관계를 실감하게 하는 교육을 목표로 함.	생명체
제3기	14세~21세	· 사춘기부터 자아가 확립되기까지의 시기 ·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발달과 아울러 성적 성숙을 체험하는 긴장과 걱정의 시기로 ‘사고’의 육성이 목표	감정체
제4기	21세~	·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됨 · 자아체의 육성 시기.	자아체

연령의 구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발달을 탄생 이외에 아동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세 단계로 구분 하였으며, 인간의 발달은 아동기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구별이 가능하고, 단계에 맞는 학습과 성향들로 이루어진다.<sup>14)</sup>

<표-1>의 4가지 구성체의 7년 주기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는 탄생에서부터 치아교체기까지의 시기로 아동 신체의 건전한 성장과 감각의 발달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치아교체 시기부터 성적 성숙기까지의 시기로서 오감의 반응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모방이 학습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모방 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도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형성이 중요함으로 규칙과 리듬을 배려한 환경을 제공하여 내적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는 사춘기부터 자아가 확립되기까지의 시기로 아이들이 회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이다. 감정교육을 위하여 예술을 통한 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며, 학교공부의 본질은 모두 감정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됨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여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전문교과를 다룰 수 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인식 욕구가 나타나고 추상적 사고 능력이 생기며 자신의 영혼적 힘, 즉 감정과 의지로 환경에 맞선다. 그럼으로써 이 시기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 슈타이너는 자유란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서 판단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

14) 이순중, 「슈타이너 인지학적 교육론의 전인교육에 대한 일고찰」, 『아동교육』, Vol.8 No.2, 1999, pp.15-26.

#### 4) 인지학적 기질론

윌리엄 라이너(ReinKarnation)와 카르마(Karma)라는 인지학적 관념으로 출발한 슈타이너는 1908년도와 1909년도 사이에 3개의 강연에서 인지학적 정신-인식으로부터 “기질의 비밀”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기질의 기초가 아스트랄체 및 에테르체의 짜임새에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본질적 핵”이라 할 수 있는 기질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결실이며, 이것은 정신세계와 신체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개인의 정신세계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소들이 결합이나 조정(Ausgleich)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우주적인 4개의 본질들, 즉 아스트랄체, 자아, 에테르체, 그리고 물리적 신체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됨으로써 인간의 4가지의 기질이 생겨난다고 보았다.<sup>15)</sup>

“참으로 영원한 (Urewig) 인간의 본체는, 하나의 화신(化身)으로부터 또 다른 화신으로 옮겨가고, 각 모든 새 화신 안에서 삶을 마치며 그 결과 인간 본질의 네 지체들인 자아,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그리고 물리적 신체는 일종의 상호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이 4개의 지체들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으로부터 인간의 명암 가름(Schatierung), 즉 기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난다”(R.Steiner,1980)

슈타이너의 기질론은 아스트랄체, 자아, 물리적 신체의 에테르체에 대한 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형식적 가능성들의 유형에 따라서 가름하는 학설이다.<sup>16)</sup>

---

15)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의 기초 인지학(Anthroposophie)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슈타이너는 ‘기질론’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처럼 제시한다. 그는 아동의 기질은 다혈질(多血質), 우울질(優鬱質), 점액질(粘掖質), 담즙질(膽汁質)로 구분하여 소우주인 인간의 내면과 우주 존재와의 공통성의 현 현을 기질론 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악하였다. 또한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보아 인간을 12감각[촉각·생명감각·운동감각·균형감각·후각·미각·시각·열감각·청각·언어감각·사고(개념감각)·자아(개체감각)]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sup>17)</sup>

슈타이너는 물리적 신체가 자신에게 있는 무거움을 가지고 에테르체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 인간 안에 ‘우울질(Melancholisch)기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된다. 우울질은 주로 감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운명과는 상관없는 비극적인 일에 동화된다.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 깊게 빠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신에게 관련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이상이나 진실을 철저히 따르려고 한다. 물리적 신체나 아스트랄체 및 자아에 의한 영향력이 에테르체에게 분명하게 비치지 않으면 ‘점액질(Phlegmatisch)기질’이 생긴다. 점액질은 보통 화를 잘 내지 않고 침착한 편이다. 또한 내적 조화와 안정감이 강하고 조용하며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다소 게으른 면이 있다. 아스트랄체가 주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면, ‘다혈질(sanguinisch)기질’이라 부르는 것이 생긴다. 기분이 가볍고 잘 변하지만, 천진난만함과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가 활동하여 에테르체에게 영향을 미치면 ‘담즙질(Cholerish) 기질’이 생긴다. 강하고 정열적이며 격노하기 쉬우며, 행동파이고 실질적이다.

16) Steiner, Rudolf, *Elemente der Erziehungskunst, Menschenkuendliche Grundlagen der Waldorfpädagogik. Stuttgart*, 1985, 재인용.

17) 김성숙, 「R. 슈타이너의 교육예술(II)-슈타이너교육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제 10집, 한국교육대학교미술교육학회, 1999, pp.5-6.

슈타이너는 기질은 삶과 연령 사이에 관계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우울질은 물리적 신체, 점액질은 에테르체, 다혈질은 아스트랄체, 담즙질은 자아가 우위를 차지한다. 반면에 어린이의 경우에는 우울질은 자아, 점액질은 물리적 신체, 다혈질은 에테르체, 담즙질은 아스트랄체가 지배적이다. 즉 기저의 바탕을 이루는 기질과 삶의 단계마다 연령상 다른 기질이 지배적이어서 성격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때 연령에 따른 기질은 유기체의 변화(본질 자체의 ‘탄생’) 및 자아-발달의 단계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다.<sup>18)</sup>

---

18) Vogel. L, *Der dreigliederte Mensch, Morphologische Grundlagen einer allgemeinen Menschenkunde*, Dornach, 1979, 재인용.

### Ⅲ.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 1. 예술교육론의 교육원리

인간은 물질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신세계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교육 형태로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슈타이너는 예술 교육에 의해 내적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적 창조성과 감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육체,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해 전인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원리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1) 정신성의 원리

슈타이너의 교육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적 인식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교육과는 달리 영혼과 정신의 세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 된 모습은 물체와 독립되어 있으며 그 물체의 정신적 근원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즉 육체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의 무한성을 근본으로 그 물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현대 교육은 물질주의의 물질에 관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물질을 관통하여 작용하는 내면 구조는 알지 못한다. 즉 외적인 현상만 관찰하여 실제의 삶과 관련된 것을 밝히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영역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19) Steiner, Rudolf, Theosophy, (New York : Anthroposophic Press), 1971, pp.40-41, 재인용.

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영혼과 정신의 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에 대한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고와 의지의 결합을 통하여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징은 사고와 의지 사이의 참된 실천적 조화에 의존한다. 그리스에서는 체조를 통하여 사고와 의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머리에서 손, 발로 흐르는 힘을 체조를 통하여 확대했고 손과 발을 움직여 춤을 추고, 씨름을 함으로써 두뇌 활동을 손발 조식과 상호 연관시켰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R.Steiner,1972)

즉 사고를 ‘질서 정연한 뜨개질과 같다’라고 생각한 슈타이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발달을 이루는 삶의 연속성 속에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아이들을 육체, 영혼, 정신이 함께 하는 우주적 존재로 파악하며, 교육을 통해 우주를 느끼고 사고와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아이들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교육적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세계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기존의 교육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의 필요성, 즉 예술 교육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정신적 삶과 인식의 확장으로부터 도출된 예술교육론은 교육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이며, 예술이라는 교육적 행위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up>20)</sup>

---

20) Steiner. Rudolf, Rudolf Steiner, An Autobiography, (New York : Blauvelt), 1977, p.128, 재인용.

아이들은 예술적 학습을 통하여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과 열정 그리고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고 가꾸어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삶의 참모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슈타이너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교육이 곧 예술 그 자체’라는 의미는 예술이라는 행위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인 정신세계를 인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서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21)</sup>

## 2) 전인적 인간 형성의 원리

인지학을 토대로 하는 슈타이너의 사상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합일을 통한 일원론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육체,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강조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슈타이너는 인간은 육체를 통하여 외부의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인식해 낼 수 없다고 보았다. 감각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세계의 본질이 감춰져 있는 영혼과 정신의 존재는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은 육체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게 해 주는 영혼과 이것을 고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는 정신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sup>22)</sup>

그러나 인간은 물질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행위는 육체, 영혼, 정신의 가교 역할을 해야만 한다. 육체를 통해서 영혼과 정신의 본질에 접근할 때

---

21) 전일균,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예술론 연구」, 『教育哲學』, 第20輯, 교육철학회, 1998.

22) G. Childs, Steiner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 Floris Books), 1991, p.24.  
재인용.

에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지적인 사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적 사고보다는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아이들은 전인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오늘 날 교실에서의 지나친 주지주의 교육은 인간을 지나치게 긴장시키며, 지적인 교육과 영혼 및 정신에 관한 교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은 지양되어야 하며, 아이들은 이를 통하여 전인적 존재(Whole being of man)로서의 인간을 배워나가야 한다.<sup>23)</sup> 이러한 교육은 예술로서의 교육을 통하여 자기 안에서 통합의 세계를 형성해 간다. 이는 모든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아동의 삶이 통합된다는 의미이며, 지적인 교과위주의 교육과는 다르게 예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의 교과가 함께 포함됨으로써 의지·감정·사고가 통합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몸과 마음, 머리와 가슴, 손발이 함께 하는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sup>24)</sup>

육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하여 지식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슈타이너 교수법의 핵심이다. 형상화되어 있는 문자 교육은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관념의 영역 속에 있는 숫자 교육은 정신적 활동의 영역을 전제로 하여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교육들은 예술적 영역에 통합적 형태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의 생각이다.<sup>25)</sup>

슈타이너의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내적 세계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전인적 인간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되며, 이것은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조화로 전인적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예술론의 원리를 담고 있다.

23) Steiner, Rudolf, A Modern Art of Education, (London : Rudolf Steiner Press), 1972, pp.75-76. 재인용.

24) 정윤경, 「슈타이너의 人智學的 教育論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25) A. Nobel, Educating through Art - The Steiner School Approach, (Edinburgh : Floris Books), 1996, 재인용.

### 3) 창조적 감성의 원리

슈타이너는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아이들로 인해 아이들의 내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힘과 열정,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다. 슈타이너는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교육에 대한 예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창조성과 내적 감성을 기초로 하여 그 안의 정신적 존재로서 고차원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정신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의지(willing)등 인간의 정신활동을 관찰해 볼 때,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Spiritual man)의 모습은 나에게 더욱 명확이 다가왔다. 나는 이 속에서 내적 세계가 창조적 힘을 가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정신의 영역 속에서 ‘정신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R.Steiner,1977)

따라서 모든 교육은 예술적 창조성과 감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교육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과도 연결된다.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술적 감각으로 볼 때 자연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자연이라는 교육적 환경과의 교감 속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성숙시킬 뿐이지만, 예술을 아는 아이들은 창의적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제작하는 아이들은 영혼을 일깨우게 되며, 그 깨어난 영혼을 통해서 스스로 예술적 활동을 지속하게 되

기 때문이다.<sup>26)</sup> 예술이라는 행위는 육체와 자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 승화시켜 준다.

슈타이너의 주요 교육과정 중 하나인 그리기 수업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깊은 통찰이나 직감의 능력을 키운다. 의지와 감성을 기본으로 새로운 형상을 그려 가고 아이들의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품고 인식의 씨앗이 되어 뿌려진다. 그 씨앗은 아이가 커가면서 사춘기까지는 감성의 토양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이 크고 ‘사고’라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sup>27)</sup> 마찬가지로 음악이나 미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감성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에포크, 포르멘, 습식 수채화 같은 색감을 통한 예술적 훈련은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아름다운 리듬’의 오이리트미(Eurythmie)라는 활동은 육체라는 악기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표현하는 깨어있는 교육방법이다.

이 활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체’보다는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오이리트미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자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활동될 때 사회적 요소로 변환된다. 또한 치료적이고 육체와 정신을 조화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언어와 음악의 감상 능력을 심화시키게 된다.<sup>28)</sup>

이와 같이 잠들어있는 정신과 신체를 깨우는 수업으로서의 슈타이너 교육은 각각 자체로서의 예술적인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내면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창조적이며 감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된다.

---

26) 강승규, 「Rudolf Steiner의 人智學과 敎育論」,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 17집, 1995.

27) 교야스 미치코, 임영희역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밝은 누리, 1997.

28) Wilkinson. Roy, Rudolf Steiner on Education, (Gloucestershire : Hawthorn Press), 1933, 재인용.

## 2. 예술로서의 교육

슈타이너의 교육이 인간 본성에 기초한 교육이면서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을 예술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점이다. 이 말은 슈타이너의 교육이 모든 교육 자체를 예술로서 간주한다는 뜻이다. 모든 예술적 자극을 수업에 적용하여 어린이의 감성을 발달시키고 의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슈타이너의 교육에서 예술은 필수 불가결하다.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싹이 나는 토양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예술에 젖어들면서 문자가 탄생되고, 숫자가 비밀을 드러낸다. 동물이나 식물의 생장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행위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가다보면, 어느 순간 사고 활동이 예술 속에서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간다.<sup>29)</sup>

괴테의 영향을 받은 슈타이너는 진정한 예술의 목적이란 자연을 단순하게 모방하거나 정신적인 것, 초감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닌 ‘사실적인 것의 감각적인 변형’이라고 보았다.

“실제적인 것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것은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존재해야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다. 어떤 개체를 주변 환경에서 끌어내어 격리된 곳에 놓으면, 당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그 개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을 조화롭게 만들 수는 없다. 사실상 한 개체의 형성은 고유 법칙성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현실이 직접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만약 그 대상이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다면, 자기 고유의 생각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자유로운 성장에서 실제로 방해받는 사고를 포착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떤 대상이 본질 자체 속에서

29) 고야스 미치코, 임영희역,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감성 교육』, 밝은 누리, 2003, p.63.

발전할 수 없는 경우 그 것을 가장 완전한 형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순간을 그 대상물 속에서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다.”

(Steiner. Rudolf, *Philosophie Freiheit.*)

이것은 인지학이 교육 예술의 토대가 되는 기본 내용을 함축한다. 슈타이너는 예술을 교육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인간과 사물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생각하였다. 이성을 통해서만 단지 물질적 요소들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관한 총체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지적인 추상화의 결과로 과학적인 지식의 체계가 수립되었지만 예술은 제외되었다. 우리는 예술로부터 독립된 과학을 응용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삶이 결여된 물질로서 자연에 대한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현대 과학은 눈으로 보이는 자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적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인식 유형만 가지고서는 인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법칙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영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 감성은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교육의 과제가 인간의 심성과 영혼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만약 정신적 삶과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교육의 예술”(art of education)이 주장된다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적인 교육 개혁과는 달리 좀 더 본질적인 것이 된 것이다.<sup>30)</sup>

즉, 슈타이너의 예술교육은 예술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영혼교육

30) Steiner. Rudolf, A Modern Art of Education, (London : Rudolf Steiner Press), 1972, 재인용.

을 위해서이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해 인간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개개인 안에 소질들이 있으며 어떤 소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로부터 항상 새로운 힘이 사회질서에 공급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인식은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달 가능한 것으로 영혼의 수련에 의해 인간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다.’ 즉, ‘인간 내부의 잠재되어 있는 인식능력을 단련시킴으로써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배울 수 있다’ 고 보고, 예술 교육을 통한 아동 내면의 교육을 시도하였다.<sup>31)</sup>

### 3. 슈타이너 예술교육의 미술적 구성

예술교육을 중시 하였던 슈타이너에게 있어 미술교육은 ‘교육의 의미로서의 미술의 이용’, ‘인류발전에 관한 설명’,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작품 제작보다는 실제로 미술적 활동을 행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미술적 활동으로 아동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마음, 정신,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sup>32)</sup>

12학년까지 있는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수업을 살펴보면 크게 회화, 도형, 수공예, 동작, 조소, 목공예, 금속공예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6학년까지는 회화(수채화, 색채 체험을 위한 연습, 정물화, 분위기 창출), 도형(형태 그리기, 이야기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자나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하, 단순한 구성), 수공예(뜨개질, 자수, 고

31) 김정희, 「슈타이너 교육 이념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실제」, 『조형교육』, 20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2, p.8.

32) 한국 슈타이너 교육예술 협회, 발도르프 교육 자료 모음집, 2집, 1998.

리바늘 뜨개질, 바느질, 인형, 동물 만들기), 공작(단순한 공작과 조각)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7학년 이상은 연필, 목탄소묘나 원근법의 학습이 포함된 회화, 조소, 목공예, 금속공예 등 보다 기술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미술활동을 한다. 그 중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에포크(Epoch)수업과 미술교육과정 중의 하나인 포르멘(Formenzeichnen, 형태소묘)과 습식 수채화(wet-on-wet watercolor)를 통한 색채학습이 미술교육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sup>33)</sup>

## 1) 에포크(Epoch)수업

에포크(Epoch) 수업은 같은 교사에 의해 매일 2~3시간씩, 3~4주간 집중적으로 배우는 수업이다.

발도르프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는 대신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자신의 노트에 그림이나 글로서 적는데 이것이 바로 ‘에포크 노트’이다. 학생들이 공부한 결과는 에포크 노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졸업 때가 되면 학생 각자의 에포크 노트의 양이 늘어나며 하나의 교과서가 된다. 매 수업시간 마다 물리, 지리, 기하학등의 각각 과목의 특색들을 에포크 노트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과 글로 나타낸다. 아이의 생활환경과 좋아하는 색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에포크 노트마다 아이들의 개성이 담기게 된다.<sup>34)</sup>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포크(Epoch) 수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실제 발도

---

33) 김성숙,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의 슈타이너 교육예술」, 『홀리스틱연구』, 제 5집, 제1호, 한국 홀리스틱 교육 실천학회, pp.63-64.

34) 박지영,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대한 연구 : 루돌프 슈타이너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1999.

르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표-2> 발도르프 학교의 7학년 시간표<sup>35)</sup>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08:00-09:50	에포크(Epoch)수업					
09:50-10:10						
10:10-10:55	영어	프랑스어	영어	공작	체육	영어
10:55-11:00						
11:00-11:45	오이리트미	복습	음악	공작	체육	음악
11:45-11:50						
11:50-12:35	프랑스어	종교	프랑스어	종교	복습	
12:35-12:40						
12:40-13:25	수예		오이리트미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에포크(Epoch)수업을 하는 것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 2) 포르멘(Formen)

포르멘이란 독일어의 Formenzeichen(선 그림-모양, 꼴, 형태, 그리기), 영어의 Form Drawing 의 의미로, 흔히 formen으로 쓰인다. ‘형태’로 번역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의 모양을 말하지는 않는다. 슈타이너가 창안한

35) 교야스 미치코, 임영희역,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밝은 누리, 1997.

포르멘은 1919년 독일 슈튜트가르트에 최초의 자유 발도르프학교를 창설한 이후, 오이리트미와 함께 시작했던 새로운 교육법중의 하나이다.<sup>36)</sup>

포르멘의 예술적 요소인 선은 어떤 형태의 윤곽을 경계 짓는 선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려내는 선의 운동에 따라,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선에 실어 몸도 마음도 선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의 형태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형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형성과 해체, 변화와 정지,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리듬이 형상화 된 것이다.

슈타이너는 선은 움직임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보았으며, 특히 초등교육에서 운동감각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이를 포르멘 학습을 이용하여 인간 교육으로까지 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어린이의 미술교육을 단순히 ‘형태를 그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선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야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직선, 곡선 등의 다양한 선들이 움직임들을 통해서, 존재의 전체로서 선과 형태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즉 슈타이너는 운동의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형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정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의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이 포르멘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슈타이너는 무엇보다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는 우주의 리듬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선의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깊이 체험시키고자 하였으며, 반복하는 포르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종의 기쁨의 감정을 생성해 내고, 그 생성된 신선한 이미지를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세상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우리는 ‘형태’라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고정시킨다. 사실 우리들은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지만

---

36) 루돌프 슈타이너, 김성숙역,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 인간학』, 물병자리, 2002.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 활발히 만들어진 활동에서 떨어져 나온 결과물이며,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완성된 결과인지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 과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왕성한 내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형태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만들어진 것(Werdende)’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Gestaltende)’의 흔적을 쫓게 하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목적에서 슈타이너의 형태그리기 수업은 선으로 자신의 기질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자료는 교사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며, 아이에게는 자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가. 수업의 실제

직선의 포르멘은 슈타이너 학교의 1학년 등교 첫날부터 시작된다. 1학년의 처음 수업시간에 직선과 곡선의 학습을 시작하며, 어린이들이 콤파스와 자로 작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하학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수업 첫날, 교사는 우선 어린이들과 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인간이 손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서 교사는 어린이들을 한 명씩 칠판 앞으로 불러내어, 분필로 직선을 긋게 한다. 좌에서 우로(횡선), 위에서 아래로(종선), 그 다음 일제히 각자의 포르멘 노트에 반원이나 호를 그린다. 교사가 그린 견본으로 아이들이 참고하여 그리는 방식이다.

---

37) 김용근, 「이 땅에 발도르프 교육이 가능한가?」, 처음처럼 5호, 1998.

때로는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원이나 나선형으로 달리기도 한다. 움직임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자신이 운동한 선을 포르멘으로 그려본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차 다양한 직선과 곡선을 체험해 간다. 그 사이 8년 담임제를 통해 아이들을 봐온 교사들은 아이들의 걸음걸이, 관찰하는 태도, 발표 방식, 그림 그리는 방식 등 개개인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학년이 되면, 어린이들은 오이리트미로 무한형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보행한다. 그때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형태는 맨 가운데서 교차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르멘으로 그려보게 된다. 이렇게 점차 자신의 신체 운동을 포르멘 선묘로 표현해 보면서, 기하학의 기본 요소를 무의식중에 익히고, 선의 질서, 교차, 방향 등의 운동감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 내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된다.

포르멘은 학년에 따라 단순한 직선이나 곡선에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직선과 곡선으로 발전해간다. 특히, 대칭형, 방형, 소용돌이형, 뿔뿔형 등의 선묘로 바뀌어 갈 때마다 선묘의 변화와 함께 아이들도 성장해나간다. 이렇게 선이 형으로 발전하고,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는 동안에 선과 더불어 자신도 움직이면서 순수한 기쁨의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포르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움직임의 궤적을 그린다는 것 보다는 어린이와 선묘(또는 도형)와의 관계이다. 즉, 선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며, 그 선과 하나가 되어 그려가는 동안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일이다.<sup>38)</sup>

---

38)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선묘(I)」, 『미술교육논총』, 제 10집, 한국미술교육학회, 2000, p.5-8.

<표-3> 형태(포르멘) 수업의 실제<sup>39)</sup>

순	단 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 간	지도 시기
1	기초적 선 체험	점과 선	점과 선의 체험	2	9월 1-2주
2		자유 곡선	먹과의 만남	2	9월 3-4주
3		점과 선의 변화	점들과 선들을 모아서	2	10월 1주
4		점과 선을 이용한 형태소묘	다양한 걸음걸이의 표현	2	10월 2주
5	자유로운 형태 조형	소리, 리듬을 듣고	전통 악기 소리 느낌 그리기	2	10월 3주
6		신체, 움직임 표현	나무의 마음 표현하기	2	10월 4주
7		전통 문양 표현	우리나라 전통 문양 그리기	2	10월 5주
8		신체, 움직임 표현	원손으로 그림 그리기	2	11월 1주
9		"	자연물보고 몸으로 표현하기	2	11월 2주
10		"	긋어서 아름다운 선 나타내기	2	11월 3주
11	대상 그리기	음악 듣고 그리기(1)	전통 음악 듣고 그리기	2	12월 1주
12		신체표현 그리기(1)	비 오는 겨울풍경	2	12월 2주
13		신체표현 그리기(2)	겨울 풍경과 나	2	12월 3주
14		음악 듣고 그리기(2)	음악과 어울리는 강 풍경 그리기	2	2월 3주
15		전통 문양 표현	꽃 문양 창작하기	2	2월 4주
16	대상 그리기	대상 그리기(1)	오징어 실물체험	2	3월 1주
17		대상 그리기(2)	난초 그리기	2	3월 2주
18		대상 그리기(3)	봄의 느낌 표현하기(1)	2	3월 3주
19		대상 그리기(4)	봄의 느낌 표현가지(2)	2	3월 4주
20		대상 그리기(5)	꽃과 봄	2	4월 1주
21	심상 표현	통합 주제 표현(1)	파스텔로 봄 나무 그리기	2	4월 2주
22		"	자유롭게 낙서하기 (봄 느낌)	2	4월 3주
23		통합 주제 표현(2)	불꽃놀이의 느낌 그리기	2	4월 4주
24		통합 주제 표현(3)	내가 좋아하는 것 만들기	2	5월 1주
25		통합 주제 표현(4)	선으로 사랑하는 사람 표현하기	2	5월 3주
26		느낌 표현하기	‘라이온 킹’ 보고 느낌 그리기	2	5월 4주
27		상상하여 그리기	자연의 소리 듣고 상상하여 그리기	2	6월 1주
28		선 표현 구성하기	손과 사물을 선으로 구성하기	2	6월 2주

39) 김성숙, 「포르멘의 원리에 기초한 형태소묘 지도법의 개발」, 『미술교육 연구 논총』,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05.

### 3) 습식 수채화

슈타이너의 수채화는 피테의 색채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회화 교육에 있어서 색을 이용한 외형적 묘사보다는 색채 체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 색에 대한 탐색은 그의 인간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색에 대한 체험은 곧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체험인 것이다.

슈타이너가 지향하고 있는 미술교육은, 아동의 색채 체험을 통해 ‘색채를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에 비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체험을 아이들의 내적 세계에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시도’ 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그는 조소적 조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색채에 친근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슈타이너는 피테의 論(론)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미 피테가 色彩論의 교수법편 속에서 논했던 사항을 깊이 받아 들일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테가 평소에 개개인의 색채를 다양한 감정의 색조를 가지고 이해했던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색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느끼는 차분함이나 침체적인 기분을 논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아이의 회화조형은 전부 색을 살리는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한 수채 물감이 아이의 내면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또한 색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퍼짐, 울동감 등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일정 시간동안 물에 적셔 둔 도화지에 수채화물감으로 그리는 독특한 회화수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내면에 자리한 기쁨과 창조적인 조형능력에 깊이 작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즐거운 미술활동 속에서 자

신의 색채 세계와의 교류를 하기 위함이다.<sup>40)</sup>

슈타이너는 색의 본질을 통해서 아이의 내면을 자극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열어 직접 그 색깔의 본질로 빠져들게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색에 대한 이론에 기초한 수채화 수업은 아이에게 신체, 영혼, 정신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수업의 실제

수업은 매주 일정한 날을 ‘그리기 날’로 정하고 규칙적으로 실행한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리기 날’의 리듬은 아이들에게 의지를 형성시켜 준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일정한 규칙과 리듬 역시 수업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집중적으로 만들어 준다. 즉, 물과 물감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일, 차분하게 행동하는 일, 정리정돈을 잘하는 일 등의 지도를 통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면 수업의 즐거움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젖은 도화지 위에 수채화로 그리는 작업은 5학년까지 지속된다.<sup>41)</sup>

어린이들은, 초등 8년간의 회화시간에서, 처음의 3년간은 순수한 색의 연습에서부터 형태적인 색의 연습을 행한다. 색채의 연습은 노란색과 청색으로부터 시작하며, 물에 적신 도화지에 번지기기법으로 표현한다. 어린이들은 색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차례로 빨강, 파랑, 노랑,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을 근접시켜 나가면서 그리거나 혼합해보고 3색, 4색을 자유롭게 교환해 보거나 색지에 색을 칠해 보기도 한다.<sup>42)</sup>

40) 권준범,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11, p.180.

41) 김정희, 「슈타이너 교육 이념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실제」, 『조형교육』, 제20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2, p.96.

42) 김성숙, 「R.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조형교육』, 제13집, 한국조형교육학회, 1997, pp.12-13.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색을 통해서 전신으로 색의 본성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색과 빛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가고, 색이 이루는 형태를 알아가게 된다.

이러한 학습은 창의적인 미술표현 속에서 어린이와 색채간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내재된 감성을 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4> 발도르프 학교의 수채화 수업의 실제<sup>43)</sup>

	수채화
1 학년	색채경험
2 학년	색채경험
3 학년	색채경험
4 학년	동물 그리기
5 학년	식물 그리기
6 학년	광물, 물리학 그리기

43) 안경훈, 「발도르프학교의 습식수채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IV. 발도르프 학교 예술교육과정 분석 및 적용사례

### 1.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

1919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설립된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는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의 ‘통합학교’ 라고도 불리며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한다. 슈타이너 학교의 교육과정의 큰 틀은 인지학에 입각한 인간의 본질과 기질, 발달 단계론에 따라 구성되지만 교육과정의 실행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문화에 따라 교사 자율에 맡긴다. 이것은 현 우리 교육의 정해져있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자는 의미로서 발도르프 학교의 모든 수업은 아이의 정신, 영혼의 소질, 재능을 중시되고 예술적 수업을 통해 발달시킨다. 예술교과를 중시한다는 의미는 교육을 예술로서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동체를 배우게 된다.

#### 1) 목표와 성격

발도르프 학교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인성을 위한 교육이다.
- 통합성을 목표로 한다.
- 생활에 기초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예술교육이어야 한다.

## 2) 교육과정 및 시간표

### ◆ 기본 체계

<그림-2> 발도르프 학교의 학년구성과 특색<sup>44)</sup>

우리나라학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의무교육												
독일공교육학제	기초학교 (Grund-schule)						중등1단계			중등2단계			
							주요학교(Haupt-schule)			직업교육과정 직업학교			
							실과학교(Realschule)(Realschule)(Real-schule)			전일제 직업학교 전문고등학교,			
							김나지움(Gymnasium)			심화과정			
발도르프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정제 단학기						자아제 단학기						
특색①	←←← 담임(8년 연임)=권위있는 어른→→→									담임無: 과목별 교사			
특색②	언어, 예술, 수공업, 종교, 운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한 선생님이 지도한다.									▶주요과목: 국어, 역사, 사회학, 예술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에포크 3~4주 (오전) ▶예술교과: 공예, 원예, 그림, 조서, 방직, 리코 기술, 기하학 ▶수공업 (에포크 6~8주, 주 3회 2시간씩)			

<그림-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년 담임제를 통한 학생과 교사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유급/낙제가 없으며, 성적표도 없다.

44) 홍성희,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초·중·고 구별이 없으며 남녀 합반을 원칙으로 한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두 개의 외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친다.
-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정, 학사 운영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 교육연한은 12년으로 한다.
- 학생들은 등록금의 지원받는다.
- 에포크 수업을 이용하여 교과서가 없는 수업을 한다.
- 주기집중수업(Epochen Unterricht)이 이루어진다.
- 삶과 연계된 예술교육을 한다.
- 오이리트미(Eurythmie)수업이 중시된다.

위와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발도르프 학교는 네 가지 기질론과 12감각론, 7년을 주기로 한 인간발달 단계 등을 이용하여 슈타이너만의 독자적인 교육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5> 발도르프학교 수업과정<sup>45)</sup>

학년	이야기	수채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1	동화	색채경험	선긋기	리듬있는 숫자놀이		동물 이야기
2	우화	색채경험	글자 익히기	숫자 익히기, 셈하기		우화
3	모세와 인디언 신화	색채경험	문법, 쓰기	숫자 익히기, 셈하기	동네학	텃밭 가꾸기
4	그리스 로마 신화	동물 그리기	시제, 읽기, 쓰기, 단어	분수, 덧셈, 뺄셈, 나누기, 곱셈	지역 지리	사람과 동물
5	역사학	식물 그리기	말하기 화법	화폐활용	인도 지리	사람과 식물
6	역사학	광물, 물리학 그리기	화법	무계와 측정	유럽 지리	광물, 물리

◆ 루돌프 슈타이너 학교 현황 및 교육과정

현재(2011년 11월 기준) 전 세계의 발도르프 학교는 총 1001개의 학교가 있으며, 국어, 이야기, 역사, 수학, 지리학, 자연학, 물리학, 화학, 불어, 라틴어, 오이리트미, 노래, 기악, 회화, 선묘, 공예, 공방작업, 제조, 기술, 종교 등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45) 안경훈, 「발도르프학교의 습식수채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표-6> 전 세계 발도르프 학교 현황 (2011년 11월 기준)

국가	학교 수	국가	학교 수
이집트	1	리투아니아	3
아르헨티나	10	룩셈부르크	1
아르메니아	1	멕시코	5
호주	33	몰도바	1
벨기에	22	나미비아	1
브라질	32	네팔	2
칠레	5	뉴질랜드	10
중국	1	네덜란드	92
덴마크	16	노르웨이	34
독일	227	오스트리아	15
에스 토니아	6	페루	3
핀란드	24	필리핀	3
조지아	11	폴란드	5
영국	1	루마니아	13
인도	32	러시아	18
아일랜드	5	스웨덴	41
아이슬란드	3	스위스	35
이스라엘	2	슬로바키아	1
이탈리아	7	슬로베니아	2
일본	32	스페인	7
캐나다	6	남아프리카	17
카자흐스탄	21	타지키스탄	1
케냐	2	대만	3
키르기스스탄	1	탄자니아	1
콜롬비아	4	태국	2
한국	2	체코	13
크로아티아	2	우크라이나	5
라트비아	2	헝가리	25
리히텐슈타인	1	미국	130

출처: www. waldorfschule.info

<표-7> 바젤·발도르프 학교 16차 교육과정(1~8학년)<sup>46)</sup>

학교	저학년· 중학년(8년담임제)								
	1	2	3	4	5	6	7	8	
국어	시귀, 시, 놀이 읽기 쓰기		수업의 정리, 작문, 보고, 편지 - 문법- 낭송, 시			문제론, 연구 발표를 함		연극의 연습	
이야기	동화	우화와 전설	성서 이야기	북구 신화	그리스 신화	타 민족의 이야기와 전기			
역사					고대 민족과 문화	로마와 중세	근대전기	현대까지의 역사	
수학	정수의 계산		필산 양 개념	분수	소수 계산	삼각정리 지수와 이차계산 기하학	대수학 평면 기하학	방정식 입체 기하학	
지리학				향토	스위스	유럽과 다른 지리권			
자연학				인간과 동물	식물	광물	건강과 영양	해부학	
물리학						소리, 광, 열, 자력			
화학						전기와 역학			
불어·독어	시귀, 노래, 간단한 회화			문자로서의 말 이행, 문법, 간단한		읽을거리, 회화			
라틴어						선택한 문헌의 문체나 형식에 관하여			
오리트리미	이야기에 합쳐서 간단한 소리, 몸과 리듬, 크빈드의 분위기			문법적인 품 시귀를 사용한 붕의 연습, 문화기		붕 연습, 음계, 음정		극적이야기, 창조단조, 기하학적인 형태화	
노래	클래스에 의한 합창								
기악	리코더(라이어)			또한 다른 악기, 클래스의 오케스트라					
회화	수채화, 색채 체험, 물건의 묘화, 분위기의 연습								
선묘	포르멘 선묘				프리헨드의 기하학과 간단한 제도				
	이야기나 그 밖의 과목을 소재로 한 묘화					그늘, 관입, 원근법			
손의 일	대바늘, 열쇠 바늘의 편물, 자수			편물, 인형이나 동물 만들기			미싱, 꿰매기, 의복		
공방작업	에포크 수업과 관련하여 한 간단한 작업					목조, 원예			
제조	놀이		최초의 제조, 손재주 연습, 구기				경 제조, 기계 제조		
기술				경작, 수공업, 집짓기					
종교	신교, 카톨릭, 기독교, 공동체, 자유 종교 수업이 교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46) www.waldorf.or.kr

<표-8> 바젤·루돌프 슈타이너 학교 16차 교육과정(9~12학년)<sup>47)</sup>

학교	고학년			
	9	10	11	12
국어	문체론, 문법, 연구 보고의 발전			
이야기	유머와 비극	니벨룽겐	파르티발	문학사 파우스트 연극
역사	괴테와 쉐러의 전기	현대까지의 역사	전기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새 시대와 계몽주의의 고찰, 전체적 전망	
미술사	조형예술	시론	음악	건축
수학	연립 방정식, 정수론, 조합론	2차 방정식, 수열과 급수, 대수, 상사, 삼각비	아핀공간과 사영 기하학	
			원추곡선, 해석기하	함수론, 미적분
			천문학	
지리학	지질학	전체로서의 지국		
자연학	운동, 감각기관	내부기관	식물학일반	동물학일반
물리학	열론 전기학	역학	전기와 방사선	광학
화학	생체화학 (발전)	산, 알칼리, 염, 광물학	정량화학의 기초	생화학
불어·독어	어학의 기초를 몸에 익히고 확실하게 한다.			
라틴어	선택된 문헌의 문체나 형식에 관하여 배운다.			
오이리트미	유머, 시, 간단한 푸가	운의 폼, 정도와 소리	디오니소스적인 폼, 로망파의 음악 현대의 시와 음악	
노래	클래스에 의한 합창			상급생의 합창
기악	상급생의 오케스트라			
회화	다양한 양식			
선묘	기하학 적, 도학적 제도			
	흑백 선묘와 프리핸드의 선묘			
손의 일	재봉, 가방 짜기, 실뿔기, 직물판지 세공, 제본			
공방작업	목공, 금속, 가공, 점토, 조리			
체조	경 체조, 기계 체조, 스포츠			
기술	공업의 구조 에너지, 환경 문제, 미디어, 정보학			
실습	농업		측량	공업
졸업제작	학문적 공예적 예술적 분야를 자력으로 졸업 제작			
종교	신교, 카톨릭, 기독교, 공동체, 자유 종교 수업이 교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47) www.waldorf.or.kr

<표-9> 발도르프 학교의 교과별 교육내용<sup>48)</sup>

■ 역 사	교과 구분 없이 사건 중심으로 공부하며, 역사는 지리와 함께 지구상의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다룬다.
■ 자연사	인간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 “인간-동물-식물-영양-골격-영혼-인류-세포-계통-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배운다.
■ 실생활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 과 학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에 기초한 과학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공부한다.
■ 음 악	인간은 음악적 법칙에 따라 그 틀이 만들어 졌다는 전제하에 교육한다.
■ 외국어	외국어 학습능력은 7세 이후에는 약화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에서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교수되어야 한다.
■ 노작 응급조치	노작은 기능의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과 친숙해 지는 데 있으며, 아동의 창조성, 생산성을 고취시켜 준다. 농사일은 땅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하며 도시문명이 자연을 격리시키는데 대한 보충이며 새와 동물, 꽃들로부터 자연을 느끼게 한다. 또한 아동의 생명 유지, 생명존중의 사상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 미 술	조화로운 영혼을 형성케 하기 위하여 예술적 접근을 한다.
■ 체육 오이리트미	전 인격을 교육하기 위하여 정신과 신체가 함께 발달하는 체육활동을 한다. 오이리트미는 의식을 느끼는 예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종 교	인간은 그가 종교를 통해 도덕적으로 추종될 때 완전해진다.

48) www.waldorf.or.kr

## 2.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우리나라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구 과천자유학교)는 2002년 3월 2일 학생 1학년 5명과 한 명의 교사로 개교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학년을 더하여 최종적으로는 초·중·고등과정 12학년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표-10>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의 연혁<sup>49)</sup>

1998년	11월	발도르프교육 공부모임 시작
2001년	2월	발도르프학교 설립을 발의하고 학교준비모임
2002년	3월 2일	과천자유학교 개교식 / 교사 1명, 1학년 5명
	3월	영어수업 시작
	5월	수공예수업 시작
2003년	3월 3일	2003학년도 시작 / 교사 4명, 1~2학년 12명
	4월	중국어수업 시작
2004년	3월 1일	2004학년도 시작 / 교사 9명, 1~4학년 51명
	3월	음악수업 시작
2005년	3월 1일	2005학년도 시작 / 교사 10명, 1~5학년 80명 (신입생 25명 포함)
2006년	3월 1일	2006학년도 시작 / 교사 17명, 1~6학년 107명 (신입생 24명 포함)
	3월	목공수업 시작
2007년	3월 1일	2007학년도 시작 / 교사 21명, 1~7학년 125명 (신입생 23명 포함)
	3월	미술수업 시작
	8월	오이리트미수업 시작
2008년	3월 1일	2008학년도 시작 / 교사 24명, 1~8학년 154명 (신입생 24명포함)
	4월	세계발도르프연맹에서 발도르프학교로 인정
	7월	8학년 졸업여행
	11월 27일	8학년 프로젝트 발표
	12월 23일 24일	8학년 졸업연극
2009년	2월 8일	8년 담임과정 마침식
	2월 16일	상급과정(9학년 12명) 시작
	3월 1일	입학식 / 교사 27명, 1~9학년 179명 (신입생 25명포함)
2011년	1월 15일	학교명 변경 (과천자유학교 →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정기총회)
	1월 29일	신터전(의왕시 청계동) 이전 및 입주교사

49) <http://www.gcfreeschool.kr/>

## 1) 목표와 성격

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육체, 마음, 정신의 건강한 발달
- 머리, 가슴, 손발의 조화로운 발달
- 책임감에 바탕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람
- 고유한 개성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사람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사람
- 이웃과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

## 2) 교육과정 및 시간표

### ◆ 기본 체계

- 8년 담임제를 통한 학급 공동체와 연속적 교육실현
- 주요과목을 3~4주에 한 과목씩만 돌아가며 학습하는 주기집중수업
-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적 교육과정 추구
- 다양한 공예활동, 노작교육을 통한 삶과 연계된 교육
- 교과서가 없는 수업
- 개성을 서술하는 통지표 추구

교과과정 및 학교운영 전반은 발도르프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다. 발도르프교육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타고나며,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개별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성과 개별성은 인간 누구나 자신의 내부로부터

터 발현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내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영혼의 빛깔과 높은 정신적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성과 감성, 의지가 조화된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예술적 체험과 방식을 통해 아름다움과 조화로우름을 경험으로 이성적 사고를 활용하는 수업을 통해 자유롭고 올바른 판단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일을 담당하고 행복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50)</sup>



#### ◆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및 수업 시간표(2011)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3학년은 형태 그리기, 우리말 · 글 배우기, 외국어 수업(영어, 중국어), 집짓기와 농사짓기, 수와 셈, 그림 그리기, 음악, 오이리트미, 수공예를 통해 배움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자극하고 내부와 외부세계 사이의 균형을 가진다. 4~5학년은 1~3학년 때 배운 교과목의 심화과정과 동네학(지리), 동물학, 식물학, 역사를 통해 자아의식을 형성시키고 개성과 재능을 발달시켜 나간다. 6~8학년은 4~5학년 때 배운 교과목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하학, 체육을 배우고 8학년 동안 배운 기본 과정들의 졸업을 준비하며 개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또한 사춘기 시리고 신체의 변화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근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개념이 형성되며, 자기 억제와 자기 동기화를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과정인 9~12학년은 사춘기 전 후의 아이들로 독립심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청계 자유발도르프 학교의 교과과정과 시간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51)</sup>

50) <http://www.gcfreeschool.kr/>

51) <http://www.gcfreeschool.kr/>

<표-11> 체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과과정(1학년~3학년)52)

<b>&lt;1학년~3학년 교과과정&gt;</b>		
<p>첫 3년간의 학교생활은 자연과 언어와 음악의 내적인 측면을 경험하려는 아동의 요구를 고려하며 진행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감탄할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며 배운 것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감정은 배우는 것에 대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아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p> <p>이 시기의 교사는 아동이 내부와 외부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가지도록 돕는다. 아동이 신체와 환경의 올바른 관계를 알아가면서 내적 경험과 육체적 조직기관의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숨 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리드미컬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미한다.</p>		
<p>■ 형태 그리기</p>		<p>아이들이 직선과 곡선을 온 몸으로 표현해 보고 그려보는 시간으로, 이후에는 주로 크레용이나 연필을 사용해서 종이에 그리며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 집중된 노력과 동작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형태의 선들을 통해 내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연습을 한다. 아이들은 이 동작 속에 있는 균형, 비율, 대칭, 통합의 특징을 느껴간다.</p>
<p>■ 우리말 · 글</p>		<p>흔히 말하는 ‘국어’ 시간으로 한글을 배우고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수업의 주를 이룬다. 1학년 때에는 주로 놀이와 노래를 통해 자·모음을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교사가 칠판에 적어둔 내용을 베껴보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아이들이 바른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이들이 필기하는 내용은 품사별로 다른 색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적게 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알아가는 연습이 된다.</p>

<p>■ 외국어수업</p>	<p>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방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글자를 배우지 않은 채 놀이와 노래, 교사와의 간단한 대화 속에서 외국어의 특성을 몸으로 익혀나간다.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 세상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세상에 대해 좀 더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이다.</p>
<p>■ 집짓기와 농사짓기</p>	<div data-bbox="486 525 872 825" data-label="Image"> </div> <p>3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여행은 지구로 내려온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재료들이 어떻게 세상에 필요한 생산물로 바뀌는지 알게 된다. 이는 이후에 경제학과 생태학으로 들어가는 통찰력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교육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p>
<p>■ 수와 셈</p>	<div data-bbox="486 848 872 112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86 1123 872 1421" data-label="Image"> </div> <p>1학년에서 아이들은 숫자의 전체성과 개별성을 경험한다. 숫자들은 원형적인 성질을 강조하여 소개된다. 하나는 통일, 둘은 이원성 등등 아이들의 세상에 익숙한 그림을 사용하고 리듬 있게 숫자를 세어 나간다. 2학년 때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서 점점 머리로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간다. 3학년부서는 수량을 측정하는 것이 말로 시작되어 신체의 비율에 기초한 전통적인 수량계기로 길이, 시간, 중량 등의 기본 단위들이 소개된다.</p>
<p>■ 그림 그리기</p>	<div data-bbox="486 1426 872 1715" data-label="Image"> </div> <p>‘습식수채화’라고 불리는 젖은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파랑, 노랑, 빨강의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색상의 내적인 언어에 귀를 기울인다. 객관적인 사물을 베끼고 묘사하지 않고 색 그대로의 성질을 보며 색의 아름다움을 느껴간다.</p>


<p>■ 음악</p>		<p>1~3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내적인 생명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감정이 입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오음계의 노래들을 부르고 연주한다. 아이들은 간단한 나무 리코더 등으로 연주를 시작한다. 2학년을 통해 곡의 종류들은 늘어나고 학급에서 작은 솔로 부분을 맡기도 한다. 3학년에서는 주음이나 온음계 시야와 관련된 음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아이들은 철자와 기보법을 접하게 된다. 리코더는 음악 시간에 가장 중요한 악기로 양손이 조화롭게 쓰여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소리를 내는 데 적당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p>
<p>■ 오이리트리</p>		<p>좋은 리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는 소리와 음악의 소리가 공간에서 동작을 통해 보이도록 만드는 활동이다. 이 예술은 민첩한 감각의 인식력과 육체적 움직임이 균형을 맞추도록 돕는 예술로 발도르프학교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과목이다.</p>
<p>■ 수공예</p>		<p>두 손의 조화를 이루고 손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뜨개질을 통해 아이들은 냄비받침, 주머니, 리코더집 등의 유용한 물건들을 만든다. 예술과 실용적인 요소가 결합된 손 기술의 습득은 이후에 실질적인 지성의 기초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p>

<표-12> 2011년 2학기 시간표 (1학년~3학년)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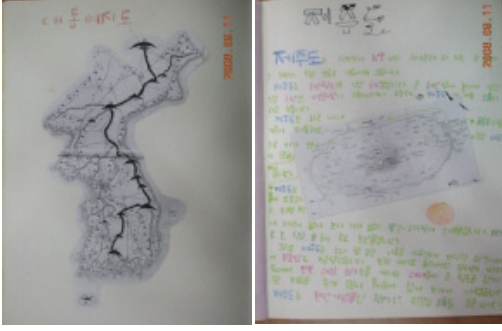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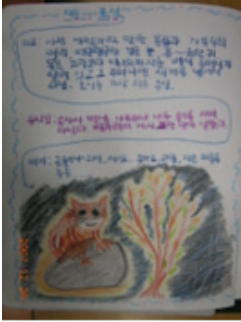

요일	교시		1	2	3
월	3	10:30~11:15	오이리트미/수공예	음 악	외국어
	4	11:25~12:10	외국어	외국어	오이리트미/수공예
	5	12:20~1:05			오이리트미/수공예
	6	2:00~2:45			
	7	2:50~3:35			
화	3	10:30~11:15	외국어	외국어	음 악
	4	11:25~12:10	오이리트미/수공예	재 량	외국어
	5	12:20~1:05		수공예	재 량
	6	2:00~2:45			
	7	2:50~3:35			
수	3	10:30~11:15	외국어	외국어	수채화
	4	11:25~12:10	수채화	나들이	재 량
	5	12:20~1:05		나들이	외국어
	6	2:00~2:45			만들기
	7	2:50~3:35			만들기
	8	3:40~4:25			
목	3	10:30~11:15	외국어	외국어	수공예
	4	11:25~12:10	나들이	오이리트미/수공예	외국어
	5	12:20~1:05		오이리트미/수공예	체 육
	6	2:00~2:45			
	7	2:50~3:35			
금	3	10:30~11:15	수공예	수채화	외국어
	4	11:25~12:10	외국어	외국어	재 량
	5	12:20~1:05		체 육	점 심
	6	2:00~2:45			수 영
	7	2:50~3:35			수 영

53) <http://www.gcfreeschool.kr/>

<표-13>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과과정(4학년~5학년)54)

<b>&lt;4학년~5학년 교과과정&gt;</b>	
<p>4~5학년 아이들은 10, 11세가 되며, 이 시기는 아동기의 중심기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이미 아동기를 뒤로 하고 떠났지만, 아직은 사춘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아 의식은 계속 커져 교사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어린 개인 집단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개개의 아이들은 뚜렷한 재능과 도전을 가진 강한 인격체로 나타나지만 아직은 어린이답다. 아이들은 여전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리듬을 갖는 교수법에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 교수법이 아동들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라면, 도전적이고 생생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으로는 아이들의 자아활동이 혈액순환과 호흡의 관계에 조화되도록 노력한다.</p> <p>4학년 후반부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들어선다. 세상을 향한 의문들이 생기게 되고, 공간과 시간 안에서 구별 지우기를 시작한다. 사실적이고 감각적인 인식세계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혼란이 동반된다.</p>	
<p>■ 형태 그리기</p>	<p>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을 표현하며 아름다움과 정확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학년부터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콤파스와 자 없이 시작한다. 손과 눈으로 충분히 연습한 후, 콤파스 기하학이 5학년부터 시작된다.</p>
<p>■ 우리말 · 글</p>	<p>새로운 의식을 이제와는 다른 언어적 자질을 위해 깨어낼 필요가 있게 된다. 문법적인 규칙을 사고의 요소로 들어오는 일이 중요하다.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지 경험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화법의 특징을 익히게 된다. 어형변화, 문장구조, 구두법, 능동태와 수동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된다.</p>
<p>■ 외국어수업 (영어, 중국어)</p>	<p>4학년부터 외국어의 읽기·쓰기가 시작된다. 언어적인 목표는 우리말·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어의 경우 이것들과 상응하는 단계에서 일상생활의 상황에 관한 회화연습이 같이 따르게 된다.</p>
<p>■ 음악</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3학년 때 시작한 기보법이 발전되며, 음악의 법칙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익힌다. 같은 음으로 노래 부르고 연주하기는 이제 여러 파트로 발달하게 되고, 합주나 합창이 가능하게 된다.</p> </div> </div>

54) <http://www.gcfreeschool.kr/>

<p>■ 수 학</p>	<p>4학년에는 분수를 통해 전체와 규칙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5학년에는 십진법을 통해 논리적·인관적 사고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백분율과 원인에 대한 수학적 발견의 준비를 한다.</p>
<p>■ 오이리트미</p>	<p>말과 음악이 연관된다. 여러 가지 문법적인 형태가 실현되고 장조와 단조의 분위기가 작용한다. 음표들의 박자를 다양한 리듬과 걸어보기로 표현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움직인다.</p>
<p>■ 동네학 (지리)</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아이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배우며, 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배운다. 5학년부터 지리가 시작되면 전체 국가를 공부하며 다른 나라와의 지리적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p> </div> </div>
<p>■ 동물학</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자연에 대해 배울 때 인간과 친밀한 동물을 먼저 시작한다. 동물들은 특별한 하나의 감각, 전문화된 운동 등으로 특별한 기관과 관계되어 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 발달된 시력을 가진 동물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인간은 잠재적으로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다른 능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능력들은 전체 동물 왕국의 종합이면서 동시에 원형으로 보여진다. 아이들은 인간이 동물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p>■ 식물학</p>		<p>하등에서 고등식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어린이와 사춘기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관계가 있다. 다르게 표현되는 식물 형태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식물이 지구·태양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일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진화와 생태라는 중요한 테마가 생물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내적 실마리로 제시된다.</p>
<p>■ 역사</p>		<p>아이들은 현재에서 벗어나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로부터 시간이 진행되어 왔음을 상상한다. 5학년에서 고대인도, 중국, 고대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문화 등을 배우는데 초기문명의 문화는 이야기들을 통해 배운다. 그리스신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기도 한다.</p>
<p>■ 수공예</p>	<p>장갑과 양말 등을 짜고, 솜으로 채워진 동물 인형을 만든다. 동물의 본을 뜨면서 동물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형태그리기에서 배운 것과 같은 교차 형태로 수놓기를 하게 된다.</p>	

<표-14> 2011년 2학기 시간표 (4학년~5학년)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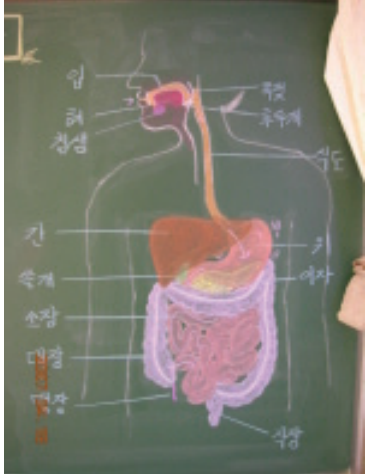
요일	교시		4	5
월	3	10:30~11:15	외국어	외국어
	4	11:25~12:10	수채화	한문
	5	12:20~1:05	재량	음악
	6	2:00~2:45		
	7	2:50~3:35		
화	3	10:30~11:15	수공예	수공예/재량
	4	11:25~12:10	외국어	외국어
	5	12:20~1:05	음악	재량
	6	2:00~2:45	체육	오이리트미/수공예
	7	2:50~3:35	재량	오이리트미/수공예
수	3	10:30~11:15	오이리트미/수공예	수공예/재량
	4	11:25~12:10	오이리트미/수공예	외국어
	5	12:20~1:05	외국어	음악
	6	2:00~2:45	만들기	만들기
	7	2:50~3:35	만들기	만들기
	8	3:40~4:25		
목	3	10:30~11:15	음악	서예
	4	11:25~12:10	외국어	서예
	5	12:20~1:05	한문	외국어
	6	2:00~2:45		
	7	2:50~3:35		
금	3	10:30~11:15	외국어	수채화
	4	11:25~12:10	재량	재량
	5	12:20~1:05	점심	외국어
	6	2:00~2:45	수영	체육
	7	2:50~3:35	수영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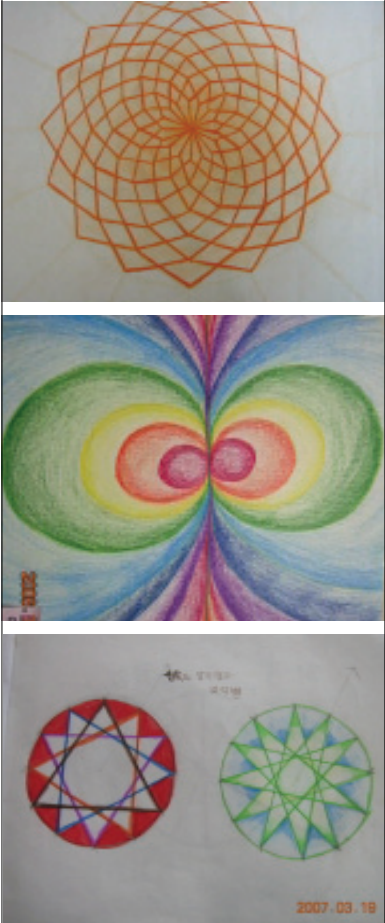

55) <http://www.gcfreeschool.kr/>

<표-15>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과과정(6학년~8학년)56)

<b>&lt;6학년~8학년 교과과정&gt;</b>		
<p>이 시기의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사춘기)에 이르렀고, 아마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두 번째 형태 변화를 겪게 되고, 영혼생활은 세상 속으로 분출된다. 자신의 고유한 시간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리듬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이 세상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p> <p>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이 나이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학적 작업의 기본 태도이다. 새로운 심리적 상황과 물리적 세계에서 가진 새로운 감각들로 그들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탐색의 신호들이 비치게 된다. 특히 이 나이에겐 자기 억제와 자기 동기화가 가장 큰 주제로 떠오른다.</p>		
<p>■ 역 사</p>		<p>6학년에는 로마 역사와 중세시대를 배우게 되며 인과성을 배운다. 이슬람과 동양의 만남을 통한 기술적, 산업적인 영향 등이 주요 주제가 된다. 7학년에는 유럽인들에 의한 발견과 신대륙 발견, 르네상스 등이 주제가 된다. 8학년들은 실제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산업의 발생과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존재를 보게 되며,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세계의 시민이 되어간다.</p>
<p>■ 물리학</p>	<p>6학년에서 시작되며, 인과성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론을 다루지 않고 청각, 광학, 열, 자기, 정전기 등의 기본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7학년에서는 기계적인 실험을 실행하고 즐기으로써 과학적 방법에 다가간다. 8학년에서는 역학의 작용과 증기기관, 모스 부호 등을 통해 물리학을 배운다.</p>	
<p>■ 화학</p>		<p>흔히 불과 연소과정으로 시작하여 석회암의 연소, 산, 알칼리와 금속 등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기술의 역사·문학적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8학년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유기적인 삶의 과정, 물질의 창조와 변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된다.</p>

56) <http://www.gcfreeschool.kr/>

<p>■ 지 리</p>	<p>하나의 전체로서 지구를 개관한다. 세계의 개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지리적 상황의 결과로 나타난 개별의 문화에 대해서 인식해 나간다. 수업을 문화적인 현상에 맞춤으로써 이기적인 일상의 관심으로부터 떼어 다른 민족과 국가를 보게 한다.</p>
<p>■ 생물학</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아이들이 사춘기의 심연에 잠길 때보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자기 몰입적이고 인간존재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과목을 도입한다.</p> </div> </div>
<p>■ 우리말·글</p>	<p>6학년에서는 가정법을 가볍게 배우고, 7학년에서는 느낌과 감정의 표현들, 감탄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들의 은어로 유창하게 말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자신을 표현하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방법들의 탐색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p>
<p>홀로, 여럿이 하는 시와 산문의 낭송을 연습하게 되며, 서로의 특성에 대해 사려깊은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서사시와 서정시, 극시에 대해 보면서 비유와 직유 등을 함께 살펴볼게 된다. 특히 드라마는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설화, 민요, 연극 등이 중요한 예술작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8학년에서는 이 모든 작업을 총망라하는 연극이 중요한 활동으로 제시된다.</p>	
<p>■ 오이리트미</p>	<p>오이리트미는 이 나이 또래에게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준다. 발라드나 익살스러운 곡들이 효과가 있다. 언어 오이리트미 역시 예술적 연출을 길러주어 언어 공부를 도와준다. 아이들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꺼리고 자신 없게 될 시기에 오이리트미가 영혼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활동으로 자리잡게 된다.</p>
<p>■ 체 육</p>	<p>체조와 스포츠 수업은 자신의 경험들을 정리해주는 자기 억제와 자기 동기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기구를 사용한 운동과 도약 운동은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구기 종목은 단독 종목보다 중요한 사회적 균형감을 키워준다.</p>

<p>■ 외국어 (영어, 중국어)</p>	<p>모국어와 비슷한 목표의 방식들이 자리 잡게 된다. 보고서와 이야기 쓰기 연습, 요약 연습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p>
<p>■ 기하학</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이론적 증명을 연습할 때, 각도, 삼각형, 내접되거나 주변의 원과 함께 사변형에 따른 모든 종류의 정의를 사용한다. 또한 이런 것들과 연관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연습한다. 8학년에서는 해부학적 비율을 통해 해부학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원근법에 의해 그려진 건축물은 역사와 그리기를 연결시켜 준다.</p> </div> </div>
<p>■ 음악</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청음은 주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게 되며, 독주와 작곡, 합창 등이 수업의 중심 부분이 된다. 다양한 작곡가와 스타일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작곡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도록 돕는다.</p> </div> </div>

<p>■ 수공예</p>		<p>아이들은 실용적인 물품들을 만들고 8학년부터 발을 움직여 작동하는 재봉틀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 기계를 가지고 옷도 만들어 보게 되며 연극을 위한 소품들도 직접 만들게 된다.</p>
<p>■ 일 년 프로젝트</p>	 	<p>8학년이 기본과정 졸업을 준비하며 실시하는 개인 프로젝트이다. 각자 자신의 관심분야를 택해 일 년 동안 주제에 관한 집중 연구를 실시한다. 아이들은 멘토를 정해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표-16> 2011년 2학기 시간표 (6학년~8학년)57)

요일	교시		6	7	8
월	3	10:30~11:15	한 문	수학연습	음 악
	4	11:25~12:10	음 악	외국어	재 량
	5	12:20~1:05	외국어	한 문	중국어
	6	2:00~2:45	체 육		오이리트미/수공예
	7	2:50~3:35	체 육		오이리트미/수공예
화	3	10:30~11:15	서 예	외국어	수학연습
	4	11:25~12:10	서 예	체 육	영 어
	5	12:20~1:05	외국어	체 육	학급회의
	6	2:00~2:45	체 육	음 악	미 술
	7	2:50~3:35	체 육	재 량	미 술
수	3	10:30~11:15	음 악	외국어	중국어
	4	11:25~12:10	외국어	수공예/목공예	음 악
	5	12:20~1:05	수채화	수공예/목공예	한 문
	6	2:00~2:45	오이리트미/재량	미 술	체 육
	7	2:50~3:35	오이리트미/재량	미 술	체 육
	8	3:40~4:25			
목	3	10:30~11:15	수공예/목공예	외국어	중국어
	4	11:25~12:10	수공예/목공예	음 악	재 량
	5	12:20~1:05	외국어	수학연습	영 어
	6	2:00~2:45		수공예/목공예	연극연습
	7	2:50~3:35		수공예/목공예	연극연습
금	3	10:30~11:15	수공예/목공예	외국어	영 어
	4	11:25~12:10	수공예/목공예	외국어	오이리트미/수공예
	5	12:20~1:05	외국어	학급회의	오이리트미/수공예
	6	2:00~2:45	학급회의	오이리트미/재량	목공예
	7	2:50~3:35	재 량	오이리트미/재량	목공예

57) <http://www.gcfreeschool.kr/>

<표-17>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 교과과정 (9학년~12학년)58)

<상급과정 9학년~12학년 교과과정>

9~12학년은 상급과정으로 불린다.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상급과정이 진행되었다.

상급학년에서는 사춘기 전후의 아이들이 지상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진행은 ‘새로운 제 3의 탄생’(영혼과 감각체, 독립체의 탄생)으로 보았다. 지금부터는 독립심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다. 한 개인의 내적인 삶은 아직은 형태를 발견해야만 하는 관계로 외부 세계와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 관계 속에서 판단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든 학습의 내용은 형성에 도전함으로써 개별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자발적 행위로서의 의무가 발견되어지는 한 개인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키워나가며,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다뤄야 하는지 배워야 하며, 그런 점에서 상급학년의 교사는 삶의 모델로서 바른 판단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이상’을 느끼고 추구해 나간다. 때로는 자신들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쉽게 회의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종종 비관적으로 변할 지라도 교사들은 지식을 향해 접근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아이들은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도적이고, 에너지 있고, 유연하고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키워나간다.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교육과정, 즉 일반적인 학과목과 더불어 목수일, 환경연구, 전자공학, 금속세공, 디자인, 아이돌보기 등 다양한 교육이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 수업과 함께 진행된다.

마지막 12학년에서 아이들은 지금까지 배워 온 모든 내용을 각각의 예술사를 통해(미술, 문학사, 건축사 등)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한 훈련을 시도한다.



58) <http://www.gcfreeschool.kr/>

<표-18> 2011년 2학기 시간표 (9학년~12학년)59)

요일	교시		9	10	11
월	3	10:30~11:15	수공예	영어	수학연습
	4	11:25~12:10	수공예	목공예	수학연습
	5	12:20~1:05	영어	목공예	중국어
	6	2:00~2:45	목공예	합창	합창
	7	2:50~3:35	목공예	합창	합창
화	3	10:30~11:15	오이리트미	중국어	영어
	4	11:25~12:10	수학연습	국어연습	수공예
	5	12:20~1:05	중국어	오이리트미	수공예
	6	2:00~2:45	체육	체육	체육
	7	2:50~3:35	체육	체육	체육
수	3	10:30~11:15	영어	수학연습	수학연습
	4	11:25~12:10	국어연습	미술	영어
	5	12:20~1:05	오이리트미	미술	국어연습
	6	2:00~2:45	농업	국어연습	목공예
	7	2:50~3:35	농업	영어	목공예
	8	3:40~4:25	학급회의	영어	학급회의
목	3	10:30~11:15	국어연습	컴퓨터	영어
	4	11:25~12:10	영어	컴퓨터	미술
	5	12:20~1:05	수학연습	중국어	미술
	6	2:00~2:45	미술	오이리트미	오이리트미
	7	2:50~3:35	미술	수학연습	오이리트미
금	3	10:30~11:15	컴퓨터	음악	중국어
	4	11:25~12:10	컴퓨터	영어	음악
	5	12:20~1:05	중국어	수학연습	국어연습
	6	2:00~2:45	음악	수공예	과학연습
	7	2:50~3:35	음악	수공예	과학연습

## V . 발도르프 학교와 우리나라 초·중등 미술교육 비교

### ◆ 초등학교·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우리나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1.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 ❖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②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를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③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④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표-19> 초등학교 미술 교육 내용 체계<sup>60)</sup>**

영역	초등학교	
	3, 4 학년	5, 6 학년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각</b>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각</b> 주변 대상이나 현상, 자신의 특징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통</b> 생활 속에서 시각 문화를 찾아보고 탐색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통</b>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기</li> </ul>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제 표현</b>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제 표현</b>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표현 방법</b>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표현 방법</b>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형 요소와 원리</b>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형 요소와 원리</b> 조형 요소와 원리를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술사</b>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흥미와 관심 갖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술사</b>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술 비평</b> 미술 작품에 흥미와 관심 갖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술 비평</b> 미술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기</li> </ul>

60)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호)[별책 2].

## 2.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 ①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②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③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④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표-20> 중학교 미술 교육 내용 체계(61)

영역	중학교 1~3 학년
체험	· <b>지 각</b>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 <b>소 통</b>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표현	· <b>주제 표현</b>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 <b>표현 방법</b>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 <b>조형 요소와 원리</b>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감상	· <b>미술사</b>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 <b>미술 비평</b>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 3. 발도르프 학교와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 비교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은 “자유로운 자아 육성을 위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창의적 중심의 미술교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작품 제작보다는 실제로 미술적 활동을 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마음, 정신,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 미술 교육과정도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술을 통해 미적 감수성과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체험, 표현, 감상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발도르프 학교와 우리나라 7차 초·중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미술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수업을 살펴보면 크게 회화, 도형, 수공예, 동작, 조소, 목공예, 금속공예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술 교육과정 안에서도 세부 과정들로 나뉘어져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적 감성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1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미술을 발도르프 학교 수업의 전반적인 중심으로 두고 있다. 예술적 감성은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며, 예술적 자극을 수업에 적용하여 아이들의 감성을 발달시키고 의지를 형성시킨다. 이는 모든 교육은 예술적 창조성과 감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09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7차 미술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이들의 발달능력에 맞는 수업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 교육을 통한 체험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알 수 있고, 표현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마지막으로 감상을 통해서도 미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교육방식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미술을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 교육과정이 내적 세계에 대한 감성개발과 전반적인 모든 교육의 기초를 예술로 두고 있다면, 우리나라 7차 미술 교육과정은 미술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물질 중심 사고방식에 대한 강박적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내적인 교육보다는 외적인 교육에 치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육이나 예술 교과보다 언어나 영어 등 주지 교과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아이들의 감수성이나 창의력, 표현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가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점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자꾸 밖으로 탈선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아이들의 내적 세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적 세계에 대한 발달은 미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목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술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슈타이너가 강조했듯이 미술 교육은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보다는, 미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세계를 단련하여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Ⅵ . 인지학적 예술교육론을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

### 1. 포르멘에 기초한 미술교육 수업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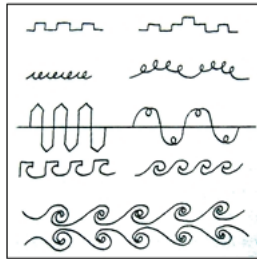
외부적인 물체의 관찰을 통해 그리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내면의 정신 세계를 통해 그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포르멘(Formen)수업은 직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곡선, 기하도형, 자연대상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아이가 그림을 통해 그날의 기분, 선호하는 형태나 마음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별 진행은 아이들이 자신의 내적 세계나 상상력, 창의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지도안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포르멘의 기본 토대인 선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통문양 그리기를 하는 수업으로 포르멘의 기본적인 수업들이 이루어진 후에 나오는 중간과정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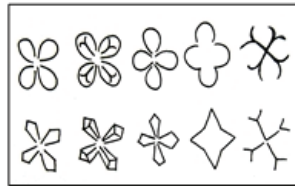
또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후에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탐구 활동지를 이용하여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발도르프 학교의 에포크 수업처럼 자기가 활동한 탐구 활동지를 모으면 하나의 미술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다음은 포르멘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그림들이다. 직선과 곡선, 대칭형, 뺏음형, 나선형, 방형, 소용돌이형 등이 있으며 아이들은 포르멘 수업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볼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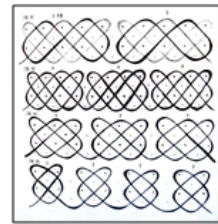
<그림-3> 형태(포르멘)<sup>62)</sup>



<직선·곡선>



<대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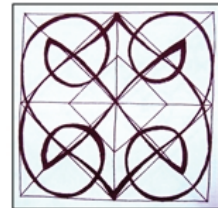
<맷음형>



<나선형>



<방형>



<소용돌이형>

62) Rudolf Kutzli, Roswitha Spence and William Mann, CREATIVE FORM DRAWING WORKBOOK 1, 2, 3. HAWTHORN PRESS, 1984.

# 대칭이 만드는 전통 문양

## I. 단원명

- 대 단원 : 표현
- 중 단원 : 형태연습
- 소 단원 : 대칭을 이용한 전통 문양
- 대 상 : 초등 3 - 4 학년

## II. 단원의 성격

- 단원 설정 이유

슈타이너는 미술교육을 단순히 ‘형태를 그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선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야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직선, 곡선 등의 다양한 선들의 움직임들이 형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정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였다.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이 되고, 울동감 있게 모여진 선들은 다시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학습했다. 이번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학습한 점과 선의 형태 복습에서 더 나아가 대칭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대칭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본 단원을 설정함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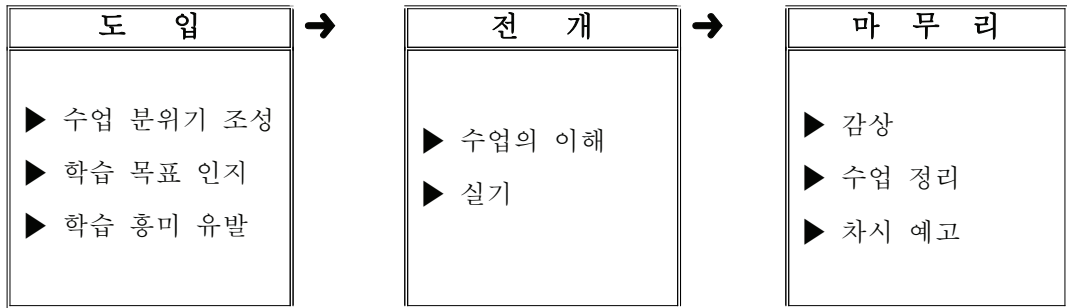
첫째, 점과 선을 이용하여 형태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형태그리기가 연습될 수 있다.

셋째, 대칭을 통해 하나의 문양을 완성 시킬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전통문양에 대해 알 수 있다.

### • 단원의 구조도



### • 단원의 학습 효과

지 도 상 의 학 습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점과 선이 모여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다.</li><li>▷ 대칭이 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li><li>▷ 선으로 표현되는 형태에 따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li><li>▷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에 대해 배울 수 있다.</li><li>▷ 자신의 개성을 살린 문양을 만들 수 있다.</li></ul>

• 차시별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상의 유의점	
▷	대칭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대칭이 어려울 경우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전통문양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	자신이 그린 그림의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	수업을 마무리 할 때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하도록 한다.

Ⅲ. 학습단원 목표

• 단원의 지도목표

단원의 지도목표	
이 해	▶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형태가 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 대칭의 원리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이해한다.
지 식	▶ 대칭에 대해 학습한다. ▶ 전통문양에 대해 학습한다.
태 도	▶ 대칭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그린다. ▶ 다른 친구들이 그린 작품을 주의 깊게 감상한다. ▶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품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 IV. 지도 계획

수업	학 습 활 동	수업형 태	시 간 (분)	준비물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과 선의 정의와 원리</li> <li>▶ 대칭 원리 이해</li> <li>▶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이해</li> </ul>	강의중심 수업	10분	컴퓨터, 스피커, 빔프로젝트	-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 활동지와 색종이를 통한 대칭의 원리를 체험</li> <li>▶ 나만의 전통문양 제작</li> </ul>		20분	탐구활동지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지우개, 가위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칭의 원리를 통해 만든 전통 문양을 그리며 느낀 점 발표</li> <li>▶ 다른 친구들이 그린 작품을 감상</li> <li>▶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 체험</li> </ul>		10분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 활동지</li> </ul>	프린트물	-	-	-

## V. 본시 학습 계획

우리나라 전통 문양 그리기					
대단원	표현	중단원	형태 연습	소단원	대칭을 이용한 전통 문양
학습 목 표	① 점과 선이 모여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다. ② 대칭이 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학습 유 의 사 항	① 점과 선과 형태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대칭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③ 전통문양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④ 자신이 그린 그림의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⑤ 수업을 마무리 할 때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하도록 한다.				
본 시 학 습 효 과	① 점과 선이 모여 형태에 대해 배울 수 있다. ②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표현됨으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양에 대해 배울 수 있다. ④ 미술의 원리를 일상 속에 적용 할 수 있다.				
기 타	탐구 활동지 1, 2, 3				
준비물	도화지, 연필(색연필), 색종이, 가위, 지우개			소요 시간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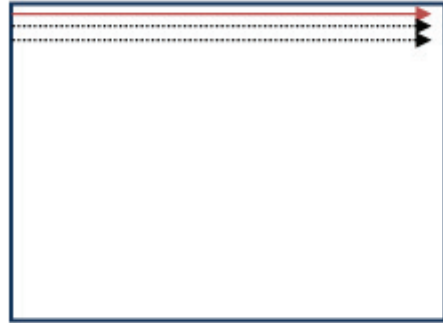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유의 사항	자료	
		교사	학생			
도 입 7분	2분	수업 준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 및 안내</li> <li>책상위에 준비물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태도 준비</li> <li>준비물 준비</li> </ul>	수업 분위기 유도	ppt, 사진
	5분	전시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복습</li> <li>ppt 및 참고자료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습</li> <li>복습</li> </ul>		
전 개 25 분	3분	실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구 활동지 - 1 (전시복습)</li> <li>점, 직선, 곡선에 대한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습</li> <li>실습</li> </ul>	활동지 1,2,3	ppt, 사진
	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구 활동지 - 2 (수업 진도)</li> <li>점과 선의 연습이 끝나면 대칭의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li> <li>색종이를 이용하여 대칭을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li> <li>실습</li> </ul>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양에 대한 기원 및 설명 (ppt &amp; 사진 자료)</li> <li>탐구 활동지 - 3 (수업 진도)</li> <li>전통문양은 왜 생겼을까?</li> <li>전통문양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li> <li>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문양은 어떻게 틀릴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li> <li>실습</li> </ul>		
마 무 리 8분	6분	감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상</li> <li>친구들과 함께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상</li> <li>감상</li> </ul>	주의 집중	-
	2분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정리 및 마무리, 차시예고</li> <li>주변 정리 및 마무리</li> <li>차시 예고 및 준비물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무리</li> <li>마무리</li> </ul>	주변 정리	-

# 포 르 멘 - 탐 구 활 동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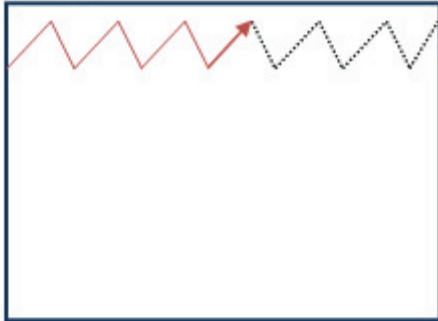
<점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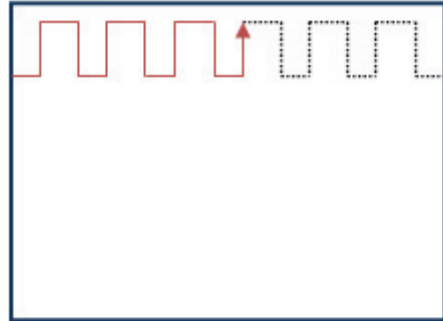
<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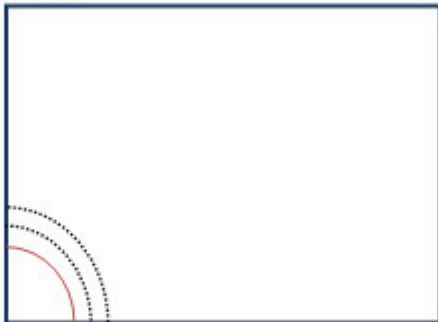
<직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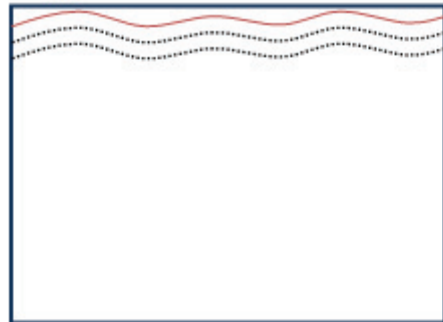
<직선-2>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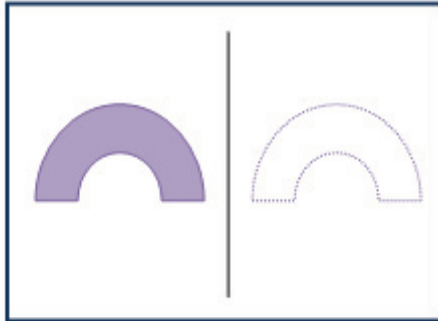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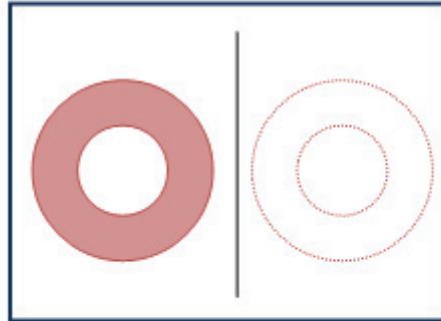


# 포르멘 - 탐 구 활 동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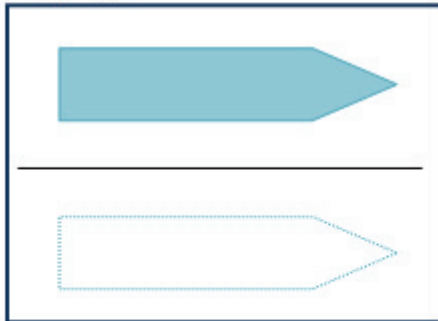
<좌우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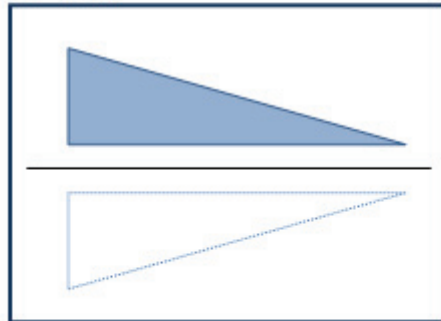
<좌우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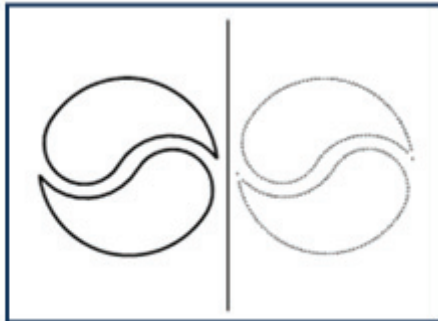
<상하대칭>



<상하대칭>



<문양-좌우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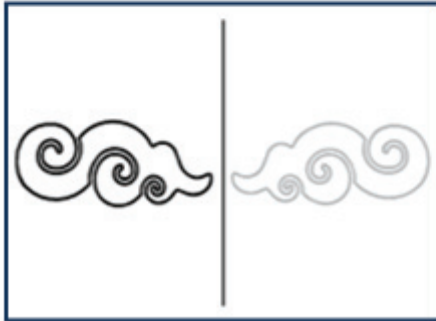


<문양-상하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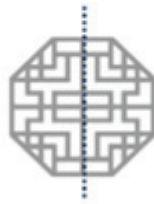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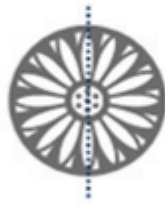


# 포 르 멘 - 탐 구 활 동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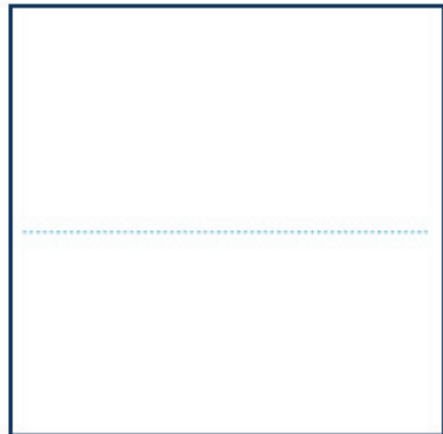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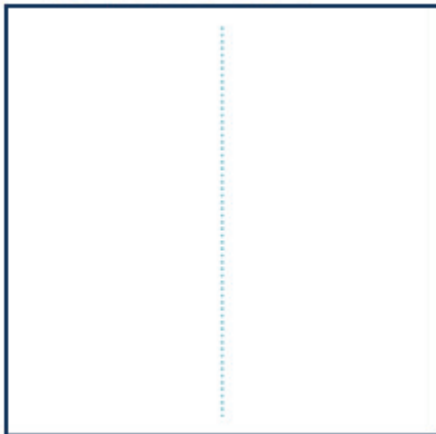
<전통문양>



<전통문양>



★ 나만의 전통문양 만들기



## 2. 수채화에 기초한 미술교육 수업지도안

슈타이너는 아이가 전신의 감각으로 색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수채물감이 가장 어린이 혼의 요소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았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형 수단은 도화지에 수채물감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라고 간주하였다.

습식 수채화(wet-on-wet watercolor)는 젖은 도화지에 형태가 아닌 물감을 이용한 작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내적 표현력을 증가시키며,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되어 가도록 도와준다.

이 지도안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슈타이너의 습식 수채화의 가장 기본적인 3색(빨강, 파랑, 노랑)을 이용하여 색과 색의 혼합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습식 수채화의 각 색에 관한 관찰 및 표현의 기본적인 수업들이 이루어진 후에 나오는 중간과정 단계이다.

<그림-7> 습식 수채화<sup>63)</sup>



63) 김소라, 「슈타이너의 습식 수채화를 활용한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하늘이 마술을 부렸나 봐요!

### I. 단원명

- 대 단원 : 표현
- 중 단원 : 3원색과 혼합
- 소 단원 : 색이 만드는 세상
- 대 상 : 초등 1~2학년

### II. 단원의 성격

- 단원 설정 이유

슈타이너는 예술적인 것은 인간 본성에 깊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이들 내면에 있는 예술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인해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인적 인간으로 양성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수채화라는 예술 활동은 아이들의 내적 경험을 움직여 색의 세계로 번져나가게 하며,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어떻게 만나 결합되어 나가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색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빨강, 파랑, 노랑의 3원색을 이용했던 슈타이너 이론을 바탕으로 표현을 통한 놀이를 하면서 직접 접하지 못했던 상상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창의력과 흥미를 북돋는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

본 단원을 설정함에 있어서,

첫째, 이야기를 통해 내적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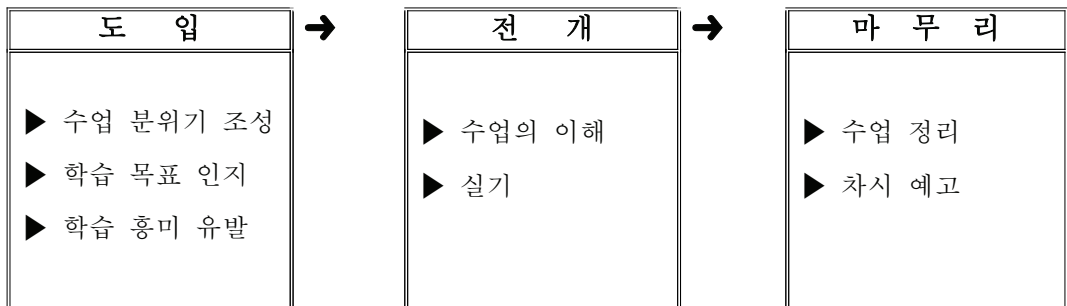
둘째, 색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색의 3원색과 혼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젖은 도화지 형태가 아닌 물감만을 이용하여 감성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으로 어우러지는 원리를 통해 색의 혼합에 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

#### • 단원의 구조도



#### • 단원의 학습 효과

지도상의 학습 효과
▷ 색의 3원색을 배울 수 있다.
▷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색과 여러 가지 표현력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성을 드러낼 수 있다.

• 차시별 지도상의 유의점

지 도 상 의 유 의 점	
▷	이야기에 따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	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원색을 이용하여 모양을 내지 않고 번져서 그리도록 한다.
▷	수업을 마무리 할 때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하도록 한다.

Ⅲ. 학습단원 목표

• 단원의 지도목표

단 원 의 지 도 목 표	
이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한다.</li> <li>▶ 물과 물감과의 관계를 이해한다.</li> <li>▶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이해한다.</li> </ul>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의 3원색 학습한다.</li> <li>▶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학습한다.</li> <li>▶ 교사가 들려주는 동화를 학습한다..</li> </ul>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의 내용을 집중하여 듣는다.</li> <li>▶ 다른 친구들이 그린 작품을 주의 깊게 감상한다.</li> <li>▶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품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li> </ul>

#### IV. 지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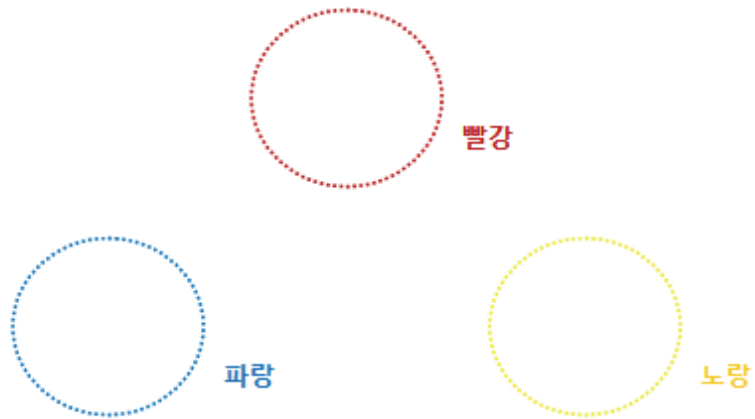
수업	학 습 활 동	수업형 태	시 간 (분)	준비물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의 3원색 이해</li> <li>▶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이해</li> <li>▶ 교사가 들려주는 동화 학습</li> </ul>	이야기 중심 수업	10분	컴퓨터, 스피커, 빔프로젝트	-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을 통한 창의적 표현 활동</li> <li>▶ 내적 표현력의 증가</li> <li>▶ 개성의 표현</li> </ul>		25분	-	도화지, 현수건, 물감, 물통, 붓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의 특성상 당일 감상이 불가함으로 색에 대한 감상만 함</li> <li>▶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 체험</li> </ul>		5분	-	-

## V. 본시 학습 계획

하늘이 마술을 부렸나 봐요!					
대단원	표현	중단원	3원색과 혼합색	소단원	색이 만드는 세상
학습 목표	① 이야기를 통해 내적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색을 이용하여 나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③ 색의 3원색과 혼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유의 사항	① 이야기에 따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② 색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③ 3원색을 이용하여 모양을 내지 않고 번져서 그리도록 한다. ④ 수업을 마무리 할 때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하도록 한다.				
본시 학습 효과	① 색의 3원색을 배울 수 있다. ②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③ 색과 여러 가지 표현력에 대해 배울 수 있다 ④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준비물	머메이드 도화지, 붓, 물감, 물통, 현 수건			소요 시간	40분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유의 사항	자료
			교사	학생		
도입	3분	수업 준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 및 안내</li> <li>책상위에 준비물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태도 준비</li> <li>준비물 준비</li> </ul>	수업 분위기 유도	-
전개	10분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내용 설명</li> <li>수채화에 대해 탐색, 대화하기</li> <li>붓에 물을 묻혀서 도화지가 축축해질 정도로 발라주세요. 이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묻히면 종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발라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li> <li>집중</li> </ul>	주의 집중	-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의 토대가 될 동화내용 들으며 실습시작하기</li> <li>물감과 물을 이용하여 퍼지개꿈 그림그리기 (색 번짐, 색 혼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취</li> <li>실습</li> </ul>		
마무리	5분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늘이 부린 마술 활동지</li> <li>활동지를 통해 수업내용 복습 및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li> <li>활동지</li> </ul>	활동지	-
	2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정리 및 마무리, 차시예고</li> <li>주변 정리 및 마무리</li> <li>차시 예고 및 준비물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무리</li> <li>마무리</li> </ul>	주변 정리	
<b>빨강, 파랑, 노랑 동화 이야기</b>			<p>하얀 눈이 온 세상을 감싼 어느 겨울날 하늘은 하얀빛의 눈이 너무나도 지겨워졌어요. “눈에게도 예쁜 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온 세상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 텐데!”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빨강이와 노랑이, 파랑이가 하늘의 집에 놀러 왔어요. 하늘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노랑이가 외쳤어요. “우리가 하늘을 도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노랑이의 말에 빨강이와 파랑이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하늘은 빨강이와 노랑이, 파랑이의 도움으로 세상에 빨간 눈, 노란 눈, 파란 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p>			

# 하늘이 부린 마술 - 활동지



★ 동그란 원 안에 빨강, 파랑, 노랑색을 찾아 색을 입혀보세요.

★ 물과 물감의 만남을 이용하여 색을 혼합하여 보세요.

★ 파랑색 + 빨강색

★ 빨강색 + 노랑색



## 하늘이 부린 마술 - 활동지

★ 물감이 물을 만나니 어떠한 모양으로 퍼지나요?



빨강



빨강



빨강



파랑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노랑

★ 두 가지 색을 혼합하니 어떤 색이 나타났나요?

Ex) 빨강 + 파랑 = 보라

## VII. 결 론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은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된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는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으로 ‘통합학교’라고도 불리며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정신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터전으로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온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곳을 목표로 문을 열었다. 이것은 현 우리 교육의 기계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자는 의미로서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의 소질 그리고 재능을 중시하고 예술적 수업을 통해 발달시키고자 하였다.

예술 교과를 중시한다는 의미는 교육을 하나의 예술로서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체,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교육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이런 예술적 체험이 모든 학습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예술 교과의 통합과 연계성을 통해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강조한다. 각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은 차곡차곡 쌓여 다른 교과와 합쳐지고, 합쳐진 지식은 아이들의 생각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슈타이너는 예술 교육론 안의 미술교육은 어린이의 내적 세계에 기본이 되는 에너지임과 동시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포르멘(Formen)과 습식 수채화(wet-on-wet watercolor) 즉 색채학습을 바탕으로 조소, 목공예, 공작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형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아 체험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생명력을

북돋워 주는 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각 과목이 몇 번씩 반복되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따라 깊은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습득하도록 하는 독특한 교육방법으로 진행된다.

슈타이너의 미술을 통해 살펴본 예술교육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을 바탕으로 통합교육론을 추구한다.

전인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앎 자체가 부분의 합이 아닌 자체로서 통합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 슈타이너는 교육을 예술로 간주하였는데, 예술은 양적인 사고와 질적인 사고 모두를 포함시켜 통합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모델 방법이다.

둘째, 예술의 경험은 아이들의 감정을 일깨워준다.

예술과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인지적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고 내적 세계의 감수성을 키운 아이들의 사고능력은 감정이나 행동영역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셋째, 예술을 교육 그 자체이다.

슈타이너는 모든 예술적 자극을 수업에 적용하여 아이들의 감성을 발달시키고 의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나 사고들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형성되어 간다. 즉 슈타이너의 교육예술은 예술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닌 영혼을 위한 교육이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세계를 잘 발달시켜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질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외적인 교육에 치중되어 과목에 따른 시설이나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장소 부족으로 인해 좁은 틀 안에서 교과 과정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업적인 면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미술 교과가 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분위기로

인해 미술과 교육을 분리시켜서 보는 시각은 ‘교육과 예술은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듯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글과 언어는 하나의 예술적 행위로 인해 변형되고 다듬어져 내려온 것이지, 그 시절에 글과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탄생된 인류적 유산이 아니다. 이것은 예술이 곧 교육 그 자체로 바라보길 원했던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은 슈타이너의 예술 교육론의 인간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도르프 학교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살펴보았다.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통하여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 삶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찾고자 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도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적합하면서 영혼과 감성을 단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슈타이너의 미술교육 중 포르멘과 습식수채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발도르프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으며,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수업의 효과를 끌어내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이 가진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수업만 모방하여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교육의 문제점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이종록·김택윤, 『창조교육이론』, 교육과학사, 1996.
- 고야스 미치코, 임영희, 외 1명역,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밝은 누리, 1996.
- 로이 월킨스,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론』, 고려대 교육사, 내일을 여는 책, 1997.
- 정윤경, 『예술로서의 교육』, 고려대학교 교육사, 철학연구회, 1997.
- 고야스 미치코, 임영희 역,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밝은누리, 1998.
- 이은선, 『한국 교육철학의 새 지평』, 내일을 여는 책, 2000.
- 한주미, 『발도르프 학교에서 나의 체험 이야기 - 노래하는 나무』, 민들레, 2000.
- 고야스 미치코, 임영희 역,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감성 교육』, 밝은누리, 2003.
- 고야스 미치코, 김수정 역, 『슈타이너 학교의 예술로서의 교육』, 밝은누리, 2003.
-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학지사, 2004.
- 요하네스 키르쉬, 이정희 역, 『발도르프 교육학』, 도서 출판 아르케, 2004.
- 루돌프 슈타이너, 김성숙 역, 『수업방법론과 교수법』, 물병자리, 2005.
- Steiner. Rudolf, Theosophy, (New York : Anthroposophic Press), 1971.
- Steiner. Rudolf, A Modern Art of Education, (London : Rudolf Steiner Press), 1972.
- Steiner. Rudolf, Rudolf Steiner, An Autobiography, (New York : Blauvelt), 1977.
- Steiner. Rudolf, Das Geheimnis der menschlichen Temperamente. Basel, 1980.
- Steiner. Rudolf, Einleitungen zu Goethes naturwissenschaftliches schriften, Dornach, 1987.
- Rudolf Kutzli, Roswitha Spence and William Mann, CREATIVE FORM DRAWING WORKBOOK 1, 2, 3 . HAWTHORN PRESS, 1984.

## <학술지>

- 강승규, 「Rudolf Steiner의 人智學과 教育論」,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 17집, 1995.
- 김성숙, 「R.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조형교육』, 제13집, 한국조형교육학회, 1997.
- 정혜영,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사상적·이론적 기초 :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교육학 연구』, 35권, 1호, 1997.
- 전일균,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예술론 연구」, 『教育哲學』, 제20집, 교육철학회 1998.
- 김용근, 「이 땅에 발도르프 교육이 가능한가?」, 『처음처럼 5호』, 1998
- 김성숙, 「R.슈타이너의 교육예술(1) - 사상형성의 과정과 미술교육사상」, 『미술교육연구논총』, 제9집, 한국교육대학교미술교육학회, 1998.
- 김성숙, 「R.슈타이너의 교육예술(2) - 슈타이너교육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0집, 한국교육대학교미술교육학회, 1999.
- 이순중, 「슈타이너 인지학적 교육론의 전인교육에 대한 일고찰」, 『아동교육』, Vol.8 No.2, 1999.
-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 선묘(1)」, 『미술교육논총』 제10집, 한국미술교육학회, 2000.
- 김정희, 「슈타이너 교육 이념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실제」, 『조형교육』 20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2.
- 김성숙, 「포르멘의 원리에 기초한 형태소묘 지도법의 개발」, 『미술교육 연구 논총』,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05.
- 정윤경, 「인지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14 No.1. pp.187~211, 2009.
- 권준범,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11.
- 김성숙,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의 슈타이너 교육예술」, 『홀리스틱연구』 제 5집, 제 1호, 한국 홀리스틱 교육 실천학회.

Roy Wilkinson,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론」, 『철학 연구회』, 고려대 교육사, 1997.

### <논문>

윤송희,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의 기초 인지학(Anthroposophie)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조연제,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2008.

정윤경, 「슈타이너의 人智學的 敎育論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박지영,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대한 연구 : 루돌프 슈타이너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1999.

안경훈, 「발도르프학교의 습식수채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홍성희,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호)[별책 2].

중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3].

### <Web Site>

<http://www.waldorfschule.info>

<http://www.waldorf.or.kr>

<http://www.gcfreeschool.kr>

# ABSTRACT

## A Study on an Art Education Lesson Plan Based on R. Steiner's Anthroposophy

Kim, Kyung M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Rudolf Steiner (1861~1925) developed an approach to education he called "anthroposophy." It emphasized developing the soul by experiencing the spiritual world. Anthroposophy directed each person to find their true essence by realizing his or her inner world.

Steiner considered the materialistic capitalist education system's sole purpose was to deliver knowledge and accumulate techniques. He termed this "dead education." With anthroposophy the purpose was the realization of one's soul. He aimed at developing the inner world latent in a child by harmonizing body, soul and spirit, and allowing the student to carve out his own identity by himself. And he saw that such growth of the inner

world was possible through art. In his anthroposophy pedagogy, art is the process that helps explain humanity and the world and a short cut to true knowledge. Therefore Steiner believed that the classes in the Waldorf School he founded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artistic elements. All the education in the Waldorf School is an integrated model using art and its goal is to nurture a holistic human being by teaching him the basis of life through art. The school believed that while drawing and creating a model, children's souls are awakened, allowing them to do more creative work.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n art education and the Waldorf school education. The latter emphasized a free education awakening children's souls. The former, as a plain example in Korean general art education, children are encouraged to color forms in a sketch on paper and finish a "well-drawn and colored picture". In the Waldorf School, art is taught in two divided sections of the Formen class, form drawing method and wet-on-wet watercolor method. In other words, in the Waldorf School, the goal of art education is not to draw well, but to experience one's ultimate self and one's sensitivity by fundamentally experiencing forms and colors.

The Formen class doesn't emphasize watching outside objects and drawing them, but on drawing with the sensitivity taken from the depths of the unconscious through the abstract inner spiritual world. In the wet-on-wet watercolor class children don't draw forms, but directly color using only watercolors on wet paper based on Goethe's chromatics. This free artistic activity allows an exchange between one's self and the colors, which helps

students better express their inner world, imagination and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ultimate goal of Korean art education is forming a whole person and its definition is to play a role to draw out an individual's potential by stimulating his imagination and originality, because of the Korean social environment emphasizing results and techniques rather than awakening children's inner worlds and their own souls and identities that they have to discover while growing up, it forces them to have a machine-like mind that produces an identical being from identical frameworks.

In this ligh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lesson plan applicable to Korean educat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ormen method and wet-on-wet watercolor method among Steiner's Waldorf School art education based on anthroposophy. In Korean art education only the result is emphasized. It considers "a well-drawn picture" as the only correct picture. It is here that the form drawing method and wet-on-wet watercolor method can be actively used. Furthermore a variety of research on the same subject will be needed in order to develop children's inner sensitivity and creativity, and establish art as one medium in their lives.